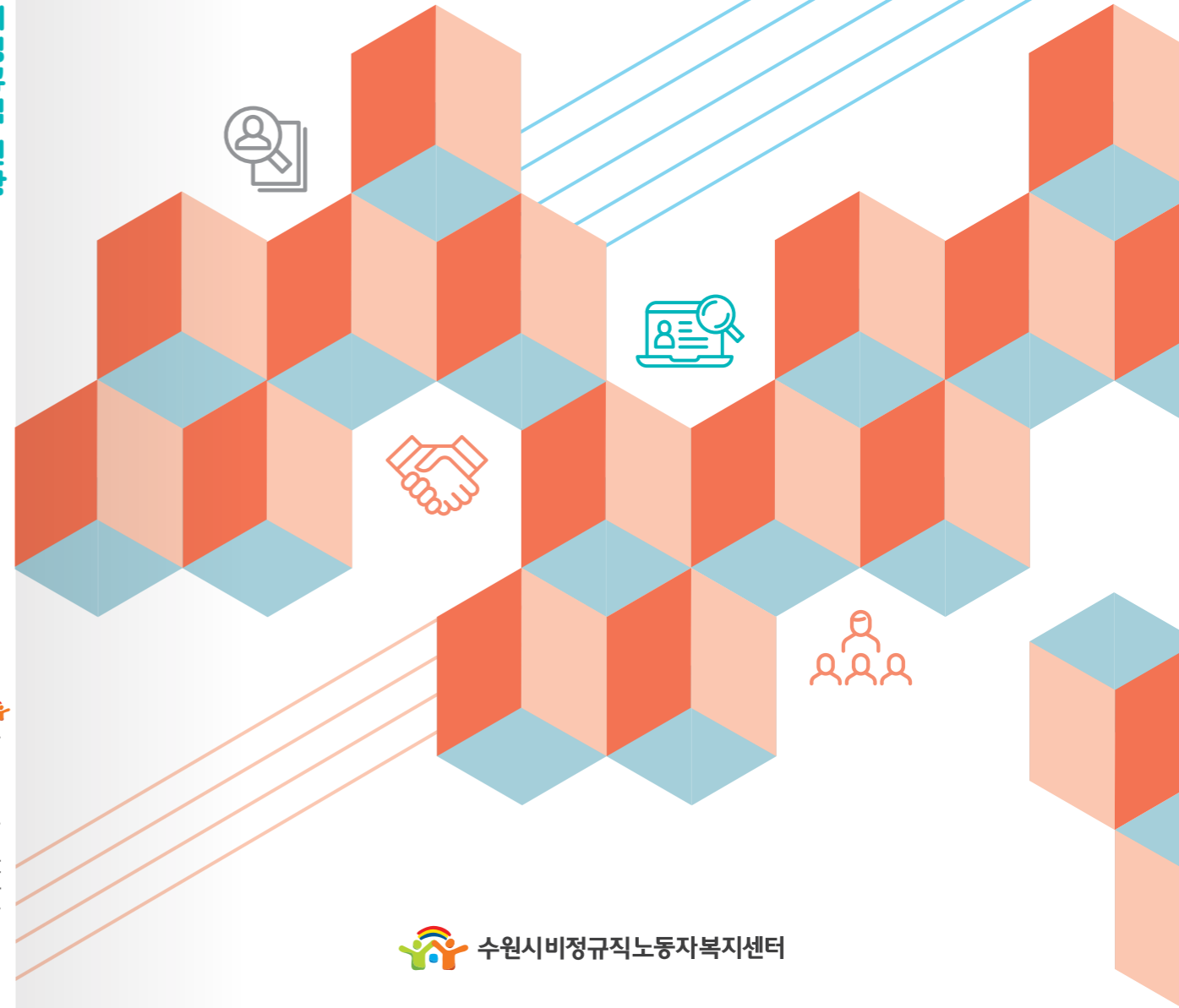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요약

-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원시의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1,064,088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67,585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96,503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643,855명, 실업자는 23,730명임.
 - 2022년 대비 2023년 수원시의 취업자는 2,392명 증가했지만 실업자는 8,317명, 비경제활동인구도 약간(114명) 증가함. 특히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과 잠재적 실업률 합계인 잠재실업률도 2023년에는 8.6%로 전년 7.1%에서 약간 상승.
- 2023년 기준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 임금노동자 수는 554,250명으로 전년 대비 8,700여 명 감소함.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은 452,347명으로 81.6%, 임시직은 71,711명으로 12.9%, 일용직은 30,191명으로 5.4%로 나타남. 전년 대비 상용직 비율은 약간 높아졌으며, 임시·일용직 비율은 감소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고용을 보면 제조업(108,966명, 19.7%),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67,909명, 1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9,482명, 8.9%), 교육서비스업(45,479명, 8.2%) 순서로 고용규모가 큼.
 - 직업별 고용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76,567명, 31.9%), 사무종사자(125,224명, 22.6%), 단순노무 종사자(68,438명, 12.3%) 순서로 고용규모가 큼.
- 수원시 임금노동자 554,250명의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임금노

동자 중에서 363,175명이 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은 191,075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34.5%로 나타남.

-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18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2.0%에서 2020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53.7%로 증가. 2021년에는 34.5%로 하락한 후 2022년에는 다시금 약간 하락해 32.7%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약간 증가함. 전국의 비정규직 비율 39.0%보다는 약간 낮은 편.

○ 2022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348.0만원으로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304.1만원과 비교하면 약 43.9만원 높은 편.

- 정규직의 경우 2023년에는 41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3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정규직은 228.7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 시에는 12.6만 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1주 노동시간은 39.4시간으로 전년 대비 1.2시간 감소함.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38.4시간과 비교하면 1.0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의 주당노동시간은 2023년 42.5시간으로 전년 대비 1.5시간 감소.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2023년 33.7시간으로 0.4시간 감소함.

○ 수원시 임금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30~99명명으로 21.8%에 이룸. 그 다음으로는 10~29명 20.9%, 300명 이상 19.6%순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3.1%임.

- 수원시의 임금노동자는 전국과 비교할 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특히, 중·대기업(300명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19.6%로 전국 평균 14.9%보다 4.7%p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양

호한 편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정체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반대로 민간 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시 노동정책의 핵심 대상이 점진적으로 광의의 서비스업 영역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

- 2023년에는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구조적인 실업자 수 증가라기 보다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 내 내부자-외부자간 격차가 구조화되지 않도록 하는 실업자 정책도 고려.

차 례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3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3
2)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	4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5
4) 보고서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7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13
1)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지표 현황	13
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3
나. 잠재실업률	16
다. 고용정책 중점대상	18
2) 임금노동자 규모	19
3) 임금노동자 특징	20
가. 개인적 특성	20
나. 산업별 분포	24
다. 직종별 분포	27
라. 사업체 규모별 분포	28
4)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29
가. 전체 임금노동자	29
나. 개인적 특성별 차이	31
다. 산업별 차이	38
라. 직종별 차이	40
마. 사업체 규모별 차이	42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45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45
가. 전체 임금노동자	45
나. 성별 차이	46
다. 연령대별 차이	47
라. 학력별 차이	48
마. 근속별 차이	49
바. 산업별 차이	50
사. 직종별 차이	52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55
2)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비교	56
가. 전체 임금노동자	56
나. 성별 차이	60
다. 연령대별 차이	61
라. 학력별 차이	63
마. 근속별 차이	64
바. 산업별 차이	65
사. 직종별 차이	66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68
자.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69
3)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비교	72
가. 전체 임금노동자	72
나. 성별 차이	73
다. 연령대별 차이	75
라. 학력별 차이	76
마. 근속별 차이	77

바. 산업별 차이	78
사. 직종별 차이	80
아. 사업체규모별 차이	82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85
1)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85
가. 거주지 분포	85
나. 개인적 특성	86
다. 고용형태별 분포	88
라. 산업별 및 직종별 분포	89
2)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91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95
1) 일반적 현황	96
가. 산업5분류별 분포	96
나. 고용형태별 분포	97
다. 성별 분포	98
라. 연령대별 분포	99
마. 학력별 분포	100
바. 근속별 분포	101
사. 직종별 분포	102
2) 월 평균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104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향후 과제	111

표 차례

[표 2-1] 수원시의 기본 고용지표 현황	15
[표 2-2] 수원시 고용지표 총괄	16
[표 2-3] 수원시 고용정책 중점대상 추이	19
[표 2-4] 수원시 임금노동자 일반 현황	20
[표 2-5] 수원시 노동자의 사업체 소재지	22
[표 2-6]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24
[표 2-7] 2022년 대비 산업별 고용 증감 현황	26
[표 2-8]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27
[표 2-9]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규모 및 비율	28
[표 2-10]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31
[표 2-11]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여부	32
[표 2-12] 월평균 임금 구간별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32
[표 2-13]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월 평균임금	33
[표 2-14]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연령대별 평균임금	35
[표 2-15] 근무기간별 임금 및 주 노동시간	37
[표 2-16] 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38
[표 2-17] 임금노동자 산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38
[표 2-18] 임금노동자 직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41
[표 2-19]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42
[표 3-1]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45
[표 3-2] 임금노동자 성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47
[표 3-3] 임금노동자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51
[표 3-4] 임금노동자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53
[표 3-5] 수원시 임금노동자 직종별-성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54

[표 3-6] 2020년~2023년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57
[표 3-7]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61
[표 3-8] 임금노동자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61
[표 3-9]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63
[표 3-10]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64
[표 3-11]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65
[표 3-12] 직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비율	67
[표 3-13]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및 비율	69
[표 3-14] 수원시 최저임금 미만자의 인적 특성	70
[표 3-15]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71
[표 3-16] 직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72
[표 3-17]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3
[표 3-18]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4
[표 3-19] 수원시의 고용형태별-성별 노동시간 추이	74
[표 3-20]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6
[표 3-21]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7
[표 3-22]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8
[표 3-23]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9
[표 3-24] 직업별-고용형태별 노동시간	81
[표 3-25]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82
[표 4-1]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거주지	85
[표 4-2]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87
[표 4-3]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율	89
[표 4-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90
[표 4-5]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91
[표 4-6] 수원시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92

[표 5-1] 수원시 산업5분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분포	97
[표 5-2] 수원시 산업5분류 성별 임금노동자 분포	99
[표 5-3] 수원시 산업5분류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비율	100
[표 5-4] 수원시 산업5분류 학력별 임금노동자 비율	101
[표 5-5] 수원시 산업5분류 근무기간별 임금노동자 비율	102
[표 5-6] 수원시 산업5분류 직업별 임금노동자 현황	103

그림 차례

[그림 2-1] 2023년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14
[그림 2-2] 수원시의 잠재실업률 추이	17
[그림 2-3] 수원시 잠재 실업률 추이(15세-39세)	18
[그림 2-4] 잠재실업률 추이(50세-69세)	18
[그림 2-5] 수원시 임금노동자 규모	20
[그림 2-6] 수원시 주당 노동시간 추이	30
[그림 2-7] 수원시 월 임금 추이	30
[그림 2-8] 연령대별 월 임금	33
[그림 2-9]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	34
[그림 2-10] 학력별 월 임금	36
[그림 2-11]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36
[그림 3-1]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46
[그림 3-2]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47
[그림 3-3]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49
[그림 3-4] 사업체 근속 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49
[그림 3-5]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56
[그림 3-6]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시급액	59
[그림 3-7]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분포	60
[그림 5-1] 수원시 산업 5대분류별 규모 추이	96
[그림 5-2] 수원시 산업5분류 기준 비정규직 비율 추이	98
[그림 5-3] 산업5분류별 월 임금 추이	104
[그림 5-4] 수원시 산업5분류별 주 노동시간 추이	105
[그림 5-5] 수원시 산업5분류별-임금구간별 비율	106

[그림 5-6] 수원시 산업 5분류별 시급액	107
[그림 6-1] 경기도 지자체별 임금	111
[그림 6-2] 경기도 지자체별 주 노동시간	112
[그림 6-3] 경기도 지자체별 시급액	113
[그림 6-4] 경기도 지자체별 월 임금 200만 원 미만자 비율	114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 이 보고서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수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의 기본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함
 -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2회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유일.
 - 이 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고서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어떠한 분석을 진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함.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기초 지자체) 차원의 고용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 증대를 배경으로 2008년부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
 - 통계청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으로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본조사)와 거의 동일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별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지위별 임금노동자 현황 등의 내용을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파악.
- 아울러 확대된 조사대상 정보를 활용하여 대분류 기준 산업 및 직종별 취업자¹⁾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 2018년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되었음. 직업대분류의 경우에는 10개 직종별로 크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조사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8~2010년은 연간 1회, 2010년~2012년은 연간 4회(분기별),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연간 2회(반기별) 조사를 진행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규모 : 약 32,000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규모 :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231,120가구 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000가구를 포함한 수치)
- 조사 기준 시점 : 상반기 - 4월 15일이 속한 주(週) / 하반기 - 10월 15일이 속한 주(週).

2)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

-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기본항목(5) : ① 가구주와의 관계 ② 성별 ③ 연령 ④ 교육정도 ⑤ 혼인상태
 - 확인사항(4) : ① 주된 활동상태 ② 취업여부 ③ 일시휴직여부 ④ 구직활동여부
 - 취업시간(3) : ① 주된 일 시간 ② 다른 일 시간 ③ 총 일한시간
 - 구직사항(6) : ① 취업가능성 ② 구직경로 및 방법 ③ 구직기간 ④ 취업희망여부 ⑤ 비구직 사유 ⑥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 직장사항(8) : ①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 이직사유 ③ 산업(직장소재지) ④ 직업 ⑤ 종사상지위 ⑥ 현직장 취업시기 ⑦ 월 평균임금

게 바뀌지 않았으나, 산업대분류는 21개 업종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여 업종분류의 조정이 있었으며,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과 같은 대분류로 조정.

⑧ 고용계약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 <지역별 고용조사> 문항 중 기본항목과 직장사항 문항 중에서 개인특성과 사업체특성을 독립변수(분류 기준)로 하여 총 근무시간(주업+부업), 월 평균임금 등을 종속변수로 임금노동자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비교가 가능
 - 1) 개인특성 및 사업체특성(독립변수) :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산업(중분류), 직업(중분류), 종사상지위(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노동자는 상용, 임시, 일용만 해당), 직장시작시기(근무기간), 사업체소재지(근무지)
 - 2) 노동현황(종속변수) : 주된 일 시간/다른 일 시간/총 일한 시간, 월 평균임금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 이 보고서는 1차적으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금노동자 현황 및 고용형태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 및 경기도 지역 현황과의 비교도 병행
- 이와 같은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고용조사>가 유일
- 따라서 2023년 4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11월에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일반 현황 및 고용형태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
 -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의 231,120 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41만 2,988명(취업자 25만 3,091명, 실업자 5,683명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4,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수원시는 15세 이상 인구 2,39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수원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수원시의 취업자는 1,383명, 실업자는 49명, 비경제활동인구 958명이며,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1,183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8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9명, 무급가족종사자 13명이 조사에 참여. 이하 분석에서는 조사 참여 임금노동자 수에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한 임금노동자 수를 활용²⁾
- 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를 산출하기에 각 항목별 합계치가 전체 합계 수치와 불일치 할 수 있으며, 항목별로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 표본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

○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특징은 변경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 지역별 고용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 자료에 기반해 전국에 11,000여 개 넘는 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조사구역마다 20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임의 선정해 조사를 실시.
- 조사구역 설정의 기준이자 모집단인 인구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기에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구역’ 과 조사구역별 조사 대상 ‘가구’ 또한 5년마다 변경됨.
- 2017년 하반기 ~ 2022년 상반기 지역별 조사까지 활용된 조사구 기준은 2015년에 진행된 인구총조사 조사 자료. 2022년 하반기 조사부터는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기반한 신(新)조사구역·조사 가구로 변경되어 조사가 진행됨.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신조사구

2) 가중치 활용에 따라 각 항목별 합계치가 전체 합계 수치와 불일치 할 수 있음.

는 11,556개소이며, 조사 가구 수는 231,120가구.

- 2022년 하반기(10월) 지역별 고용조사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조사 대상 표본가구와 2023년 상반기 조사 대상 표본 가구가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조사 항목의 수치들이 이전 5년간 추이와 다를 수 있음.

4) 보고서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지만 통계청에서 매년 8월에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즉,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파악하는 한시적, 파트타임, 파견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호출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지역별 고용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유형 중 ‘직접 고용’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은 파악이 가능
-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의 기본 현황을 아래 기준에 입각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확인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새롭게 분류 : 종사상지위(상용/임시/일용), 고용계약기간 설정 여부, 총 일한시간 3가지 변수를 활용³⁾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비전형 고용(파견, 용역, 특수형태고용, 호출근로, 가내근로) 등 비정규직 유형을 조사하여 정규/비정규직을 분류하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비전형 고용 관련 문항이 없어서 간접고용 비정규 및 특수고용은 파악할 수 없음.

- 상용직의 경우 정규/비정규직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이하 계약직이 분명하므로 따라서 상용직 중에서 비정규직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했는가(기간제 여부)와 주당노동시간 정보를 통해서 시간제 여부를 확인 가능
-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정규직 분류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류 작업을 진행
 - ① 임시직과 일용직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② 상용직이면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③ 상용직이면서 주당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④ 상용직 중에서 ‘계약직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의 중복을 제거하고 정규직으로 정의
- 그럼에도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소위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실제 수원시의 비정규직 규모보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과소 추계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사용자가 둘 이상인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리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자영업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큼
- 비정규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

치단체 차원에서 임금노동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 자료 이기에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 실태를 고용형태와 임금,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함

- 계약직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만 분류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은 ‘수원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이라 할 수 있음

<참고> 통계청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분류기준

□ 상용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한시적 기간(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원시 고용관련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함

1)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지표 현황

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통계청에서 매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
 - 이는 우선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⁴⁾로 구분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면서 학생, 주부, 취업포기자 등과 같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함
- 2023년 상반기⁵⁾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원시의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1,064,088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67,585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96,503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643,855명, 실업자는 23,730명임.
 -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원시의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1,053,264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56,875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96,389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

4) 실업자의 정의는 조사 대상 주관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바로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자로 정의. 구직활동 자체가 하나의 경제활동으로서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5) 이하 각 년도는 각 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의미함.

서 취업자는 641,463명, 실업자는 15,412명임.

- 2022년 대비 2023년 수원시의 취업자는 2,392명 증가했지만 실업자는 8,317명, 비경제활동인구도 약간(114명) 증가함. 특히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2023년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 2023년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62.7%,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60.5%,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비율)은 3.6%임.
 -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2019년 증가하다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한 후 2022년 다시금 회복해 2023년에는 62.7%를 기록. 반면 고용률은 실업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0.4%p 하락.
 - 반면 실업률은 지난 2022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1.3%p 증가한 3.6%를 기록.

[표 2-1] 수원시의 기본 고용지표 현황

(단위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 활동 참가율	수원	63.1	61.1	60.7	62.4	62.7
	경기도	64.6	62.6	63.3	64.0	65.5
	전국	63.6	62.0	63.0	66.0	64.4
고용률	수원	60.4	58.8	58.4	60.9	60.5
	경기도	61.9	60.1	60.6	64.1	63.7
	전국	60.8	59.4	60.4	62.1	62.7
실업률	수원	4.3	3.8	3.8	2.3	3.6
	경기도	4.2	4.0	4.3	2.8	2.7
	전국	4.4	4.2	4.0	3.0	2.8

- 2023년 수원시 전체 고용률은 60.5%로 경기도 고용률 63.7%, 전국 62.7%보다 낮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고용률은 70.1%로 높은 수준인 반면, 여자는 51.0%로 낮은 수준에 있음. 남성은 전년(71.7%) 대비 약간 낮아진 반면에 여성(50.2%)은 약간 상승함.
 - 연령별로 40대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인구가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
 - 학력별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인력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아짐.
- 실업자는 23,730명으로 남자가 13,425명, 여자가 10,30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천여 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실업자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13,1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이 16,361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2] 수원시 고용지표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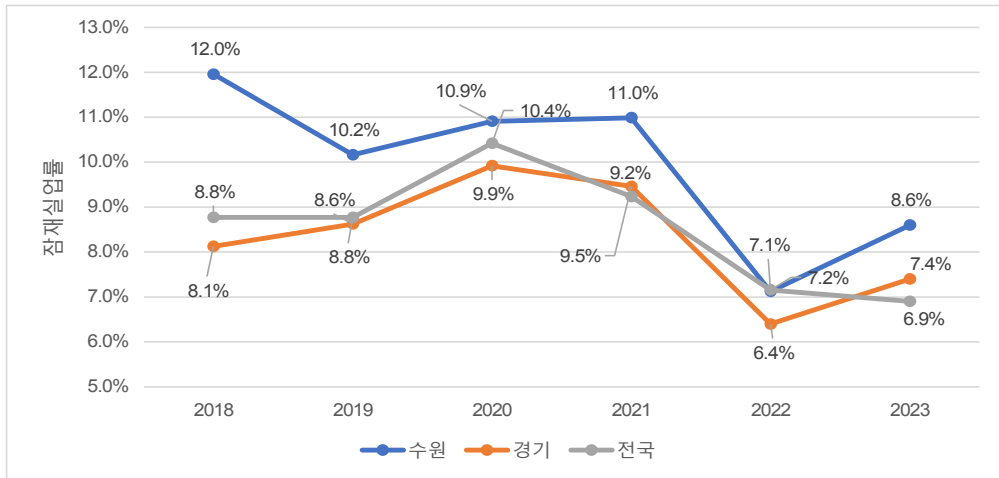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잠재실업률	
전체	1,064,088	667,585	643,855	23,730	33,800	62.7%	60.5%	8.6%	
성별	남자	530,016	384,866	371,441	13,425	14,729	72.6%	70.1%	7.3%
	여자	534,072	282,719	272,414	10,305	19,071	52.9%	51.0%	10.4%
연령	15~39세	417,838	254,952	241,836	13,116	22,207	61.0%	57.9%	13.9%
	40~49세	199,769	163,666	160,821	2,845	3,191	81.9%	80.5%	3.7%
	50~69세	342,453	229,618	222,565	7,053	5,895	67.1%	65.0%	5.6%
	70세 이상	104,027	19,348	18,632	716	2,507	18.6%	17.9%	16.7%
학력	중졸이하	166,131	46,022	44,364	1,658	2,917	27.7%	26.7%	9.9%
	고졸	385,456	214,711	209,000	5,711	12,264	55.7%	54.2%	8.4%
	전문대졸 이상	512,501	406,852	390,491	16,361	18,619	79.4%	76.2%	8.6%

나. 잠재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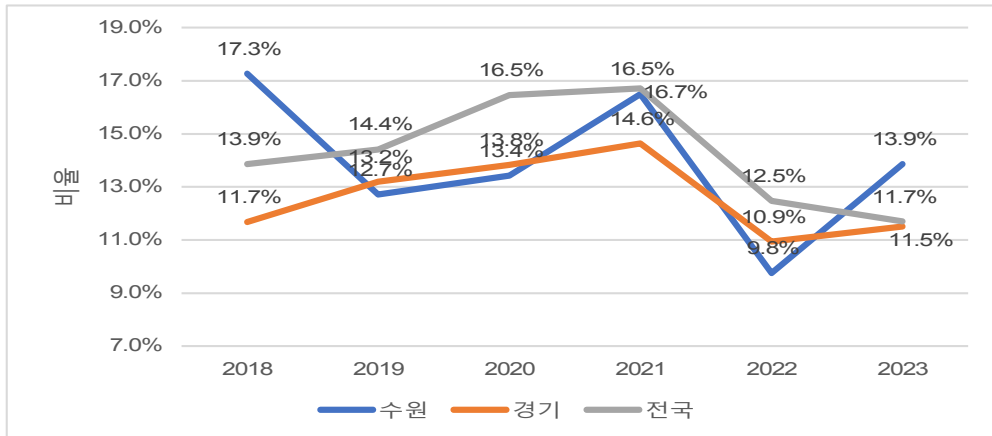
- 실업률과 잠재적 실업률 합계인 잠재실업률은 2023년 8.6%로 전년 7.1%에서 약간 상승. 2018년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소폭 상승.
 - 잠재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나 공시준비 노동력까지 포함하고 있음. 경기도에 비해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수원시에 더 많음을 의미.
 - 경기도도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들어서 1.0%p 상승함. 전국치는 전년 대비 0.3%p 하락.

[그림 2-2] 수원시의 잠재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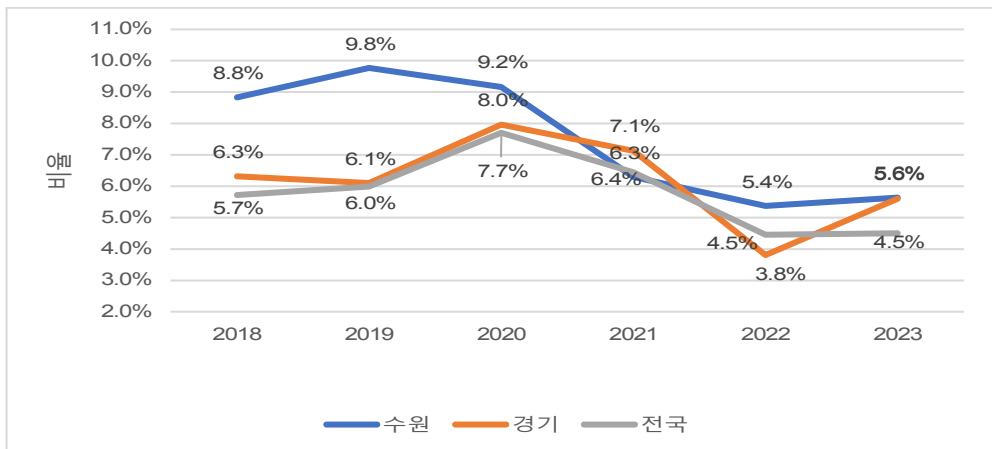


- 연령별 잠재실업률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은 2018년 17.3%에서 감소 추세에 들어서며 전국과 경기도 평균 이하에 머물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16.5%로 상승 후 2022년에는 9.5%로 하락한 후 2023년에는 다시 상승해 13.9%를 기록.
 - 2023년 청년층에서의 잠재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도, 전국 대비 비율치가 높은 편임. 즉 경기도, 전국과 비교 시 경기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높은 것.
 - 5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18~2020년간 전국과 경기도 평균 잠재실업률보다는 높지만 202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3년 들어서 0.2%p 상승한 5.6%를 기록.

[그림 2-3] 수원시 잠재 실업률 추이(15세-39세)



[그림 2-4] 잠재실업률 추이(50세-69세)



다. 고용정책 중점대상

- 고용정책중점대상은 실업자와 잠재실업자를 합한 것.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으려는 인력이고 잠재실업자는 적절한 일자리만 제공된다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인력으로, 실제 지역에서 창출해야 할 일자리 총량을 추정하는데 활용됨.

- 일자리가 필요한 수원시 고용정책중점대상이 2019년 ~ 2021년 기간 동안 6만여 명 후반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

해 4만 6천여명대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다시 증가해 57,000여 명을 기록.

- 성별로는 남자가 28,100여개 일자리, 여자가 29,000여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
- 연령별로 30대 이하 청년층이 35,000여개 일자리가, 50-60대는 12,000여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수원시 고용정책 중점대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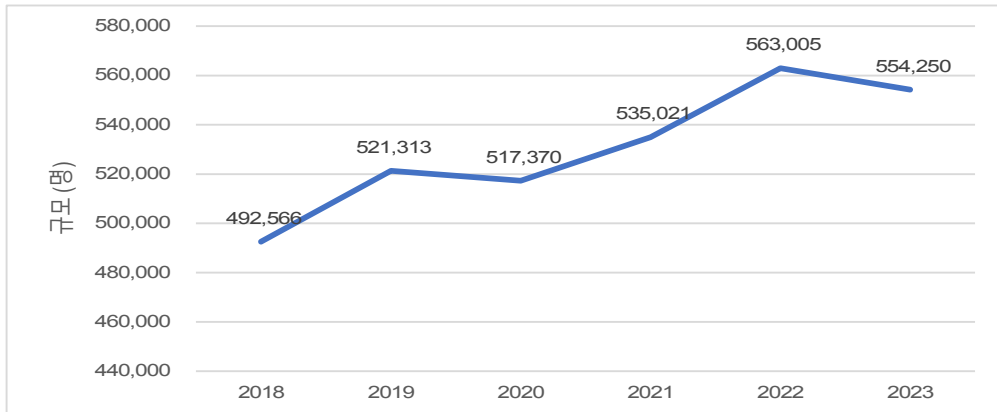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66,612	69,338	69,501	46,797	57,530
성별	남자	36,391	36,776	37,400	22,304	28,154
	여자	30,220	32,561	32,101	24,493	29,376
연령별	15~39세	33,829	34,835	42,437	26,036	35,324
	40~49세	10,318	12,482	11,234	8,503	6,036
	50~69세	20,457	18,547	13,028	11,885	12,947
	70세 이상	2,008	3,474	2,800	373	3,223

2) 임금노동자 규모

- 2023년 기준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 임금노동자 수는 554,250명으로 확인.
 - 수원시 임금노동자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521,313명,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517,370명으로 약간 하락한 후 2021년, 2022년에 증가한 후 2023년에는 약간 감소해 554,250명을 기록.

[그림 2-5] 수원시 임금노동자 규모



3) 임금노동자 특징

가. 개인적 특성

- 2023년 상반기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7.4%, 여성이 42.6%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과 비교시 남성 비중은 58.7%에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41.3%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년도 수원시 남성 노동자 비율은 57.8%, 여성은 42.2%였음. 남성은 0.4%p 감소, 반대로 여성은 0.4%p 증가함.

[표 2-4] 수원시 임금노동자 일반 현황

구분		수원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성	남성	318,268	57.4	11,806,610	54.2
	여성	235,982	42.6	9,986,935	45.8
연령	29세 이하	92,765	16.7	3,631,484	16.7
	30대	129,409	23.3	4,551,642	20.9

구분		수원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40대	137,983	24.9	4,967,867	22.8
	50대	122,755	22.1	4,853,889	22.3
	60세 이상	71,337	12.9	3,788,664	17.4
학력	중졸이하	39,376	7.1	2,253,190	10.3
	고졸	176,126	31.8	7,565,470	34.7
	전문대졸이상	338,747	61.1	11,974,885	54.9
근무 기간	6개월 이하	123,755	22.3	5,397,145	24.8
	6개월~1년 이하	40,031	7.2	1,645,649	7.6
	1~5년 이하	179,290	32.3	6,519,058	29.9
	5~10년 이하	78,719	14.2	3,262,125	15.0
	10년 초과	132,454	23.9	4,969,568	22.8
종사상 지위	상용직	452,347	81.6	16,104,898	73.9
	임시직	71,711	12.9	4,614,518	21.2
	일용직	30,191	5.4	1,074,130	4.9
합계		554,250	100.0	21,793,545	100.0

- 2023년 연령별대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40대가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23.3%로 두 번째 비중치를 보임.
 -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추세. 30~50대 모두 20% 초반으로 이들 세대가 임금노동자의 주축임. 29세 이하 노동자 및 6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은 각각 16.7%, 12.9%로 전국의 같은 연령대가 각각 16.7%, 17.4%인 것과 비교하면 수원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다소 젊은 편. 하지만 6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은 2018년 8.5%에서 2023년 12.9%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임금노동자가 61.1%, 고졸이 31.8%로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학력수준보다는 높은 편.
- 현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보면 1년 초과~5년 이하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한 노동자의 비중이 23.9%로서 수원시는 전반적으로 전국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근무기간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은 452,347명으로 81.6%, 임시직은 71,711명으로 12.9%, 일용직은 30,191명으로 5.4%로 나타남.
 -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상용직 비중은 높고, 임시직은 전국 대비 낮으며 일용직의 비중은 전국 대비 약간 높은 편.
 - 전년도와 비교시 상용직은 2,477명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8,987명, 일용직은 2,246명이 감소함.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 소재지를 파악하기에 이를 통해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취업자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5] 수원시 노동자의 사업체 소재지

지역	인원(명)	비율(%)	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종로구	2,797	0.5	경기의정부시	907	0.2
서울중구	5,568	1.0	경기안양시	11,788	2.1
서울용산구	3,383	0.6	경기부천시	2,775	0.5
서울성동구	3,601	0.6	경기광명시	1,547	0.3
서울동대문구	986	0.2	경기평택시	13,646	2.5
서울중랑구	898	0.2	경기안산시	13,001	2.3
서울강북구	514	0.1	경기고양시	360	0.1
서울마포구	1,887	0.3	경기과천시	990	0.2
서울강서구	471	0.1	경기오산시	5,672	1.0
서울구로구	3,426	0.6	경기시흥시	3,056	0.6

지역	인원(명)	비율(%)	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금천구	3,796	0.7	경기군포시	10,551	1.9
서울영등포구	5,980	1.1	경기의왕시	8,337	1.5
서울동작구	454	0.1	경기하남시	428	0.1
서울관악구	1,633	0.3	경기용인시	36,016	6.5
서울서초구	6,850	1.2	경기파주시	537	0.1
서울강남구	16,151	2.9	경기이천시	4,493	0.8
서울송파구	7,244	1.3	경기안성시	1,960	0.4
서울강동구	495	0.1	경기김포시	495	0.1
인천중구	1,017	0.2	경기화성시	76,859	13.9
인천연수구	459	0.1	경기양주시	388	0.1
인천부평구	966	0.2	경기여주시	495	0.1
인천서구	991	0.2	충북청주시	439	0.1
인천미추홀구	564	0.1	충북진천군	428	0.1
광주서구	459	0.1	충북음성군	923	0.2
대전서구	912	0.2	충남천안시	3,747	0.7
대전유성구	537	0.1	충남아산시	928	0.2
세종세종시	819	0.1	충남당진시	495	0.1
경기수원시	256,938	46.4	경북영주시	454	0.1
경기성남시	22,350	4.0	제주제주시	388	0.1

- 수원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소재지 정보를 통해서 임금 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수원시 노동자들이 수원시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46.4%로 전년도 51.2%에서 약간 하락했다.
 -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자체와 비교하면 거주 지역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는 수도권 지역이 사실상 단일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은 수원을 제외하면 기아차와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76,859명(1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소재 회사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도 66,134명(12.1%)로 세 번째 규모를 보임. 이외에 용인시와 성남시, 안양시, 평택

시, 안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1만 명 이상으로 확인.

- 서울로 출근하는 수원시 노동자 수는 2020년 59,887명까지 감소한 이후 2021년 64,577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63,949명으로 약간 감소한 후 2023년에 다시 증가함. 반면 화성시로 출근하는 노동자수는 2019년 65,520명, 2020년 60,40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금 64,776명으로 증가후 2022년, 2023년에는 7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경기도 화성시 지역이 수도권 서남부 중소 제조사업체의 이전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화성시 지역이 인접한 수원시 지역 노동자의 주일자리화 되는 양상이 드러남.

나. 산업별 분포

- 수원시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2023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농림어업, 광업,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국제 및 외국 기관 업종의 노동자는 없으며, 21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에서는 제조업 노동자가 19.7%로 단일 업종 중에서는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음.
- 수원시 노동자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20.8%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15.8%로 급감한 후 2021년 16.7%, 2022년 17.7%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표 2-6]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산업별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농림어업	-	-	86,493	0.4
광업	-	-	6,898	0.0
제조업	108,966	19.7	3,999,063	18.3

산업별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340	0.2	81,196	0.4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2,733	0.5	140,800	0.6
건설업	39,254	7.1	1,678,489	7.7
도소매업	40,746	7.4	2,125,895	9.8
운수및창고업	23,571	4.3	948,164	4.4
숙박및음식점업	30,507	5.5	1,433,602	6.6
정보통신업	28,943	5.2	906,414	4.2
금융보험업	15,217	2.7	753,909	3.5
부동산업	10,553	1.9	384,282	1.8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67,909	12.3	1,176,638	5.4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	40,893	7.4	1,316,217	6.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22,514	4.1	1,265,268	5.8
교육서비스업	45,479	8.2	1,616,139	7.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482	8.9	2,771,417	12.7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8,309	1.5	356,917	1.6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	17,833	3.2	651,045	3.0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	77,995	0.4
국제 및 외국기관	-	-	16,702	0.1
합계	554,250	100.0	21,793,545	100.0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12.3%로 두 번째로 고용규모가 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 해 12.2%로서 올해 비율치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절대 규모에서는 전년 대비 900여 명 가량 감소함.
-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9%), 교육 서비스업(8.2%), 도소매업(7.4%)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광의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2022년 대비 2023년 수원시 산업별 고용 증감 현황을 보면 고용이 3,000명 이상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업, 공공행정 부문이다.

[표 2-7] 2022년 대비 산업별 고용 증감 현황

산업	증감규모(명)	증감비율(%p)
제조업	9,044	2.0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53	-0.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421	-0.2
건설업	-8,642	-1.4
도소매업	-17,770	-3.0
운수및창고업	894	0.3
숙박및음식점업	-3,613	-0.6
정보통신업	1,372	0.3
금융보험업	-912	-0.2
부동산업	2,538	0.5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949	0.1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	9,404	1.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4,051	0.8
교육서비스업	-875	0.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688	-0.5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2,542	0.5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	1,524	0.3
소계	-8,755	0.0

- 반면에 3,000명 이상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및음식

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다. 직종별 분포

-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는데, 2022년 34.3%보다 비중이 약간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치 23.8%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사무종사자가 22.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12.3%로 세 번째.

[표 2-8]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직업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관리자	3,627	0.7	445,094	2.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6,567	31.9	5,178,181	23.8
사무종사자	125,224	22.6	4,676,234	21.5
서비스종사자	54,692	9.9	2,404,673	11.0
판매종사자	33,832	6.1	1,526,899	7.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64,019	0.3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50,374	9.1	1,722,909	7.9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41,496	7.5	2,132,633	9.8
단순노무 종사자	68,438	12.3	3,642,902	16.7
합계	554,250	100.0	21,793,545	100.0

- 반면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기계조립조작 종사자 등 주로 생산기능직에 해당되는 직종의 임금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편이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임.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별 특징은 연

구 및 전문기술 서비스업이 발전한 수원시의 산업적인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산업별 현황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닌데도 생산기능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원시의 제조업 내부 구성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즉, 제조업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무직이나 기술직 등 비제조 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라. 사업체 규모별 분포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30~99명으로 21.8%에 이룸. 그 다음으로는 10~29명 20.9%, 300명 이상 19.6%순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3.1%임.
 - 수원시의 임금노동자는 전국과 비교할 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수원시 노동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100명 이상부터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중·대기업(300명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19.6%로 전국 평균 14.9%보다 4.7%p 높게 나타남.
 -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뒤에서 살펴볼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높은 임금수준 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 요인임.

[표 2-9]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규모 및 비율

직업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1~4명	72,444	13.1	3,711,317	17.0

직업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5~9명	70,290	12.7	3,602,378	16.5
10~29명	115,661	20.9	4,857,798	22.3
30~99명	120,699	21.8	4,225,248	19.4
100~299명	66,358	12.0	2,156,215	9.9
300명 이상	108,799	19.6	3,240,589	14.9
전체	554,250	100.0	21,793,5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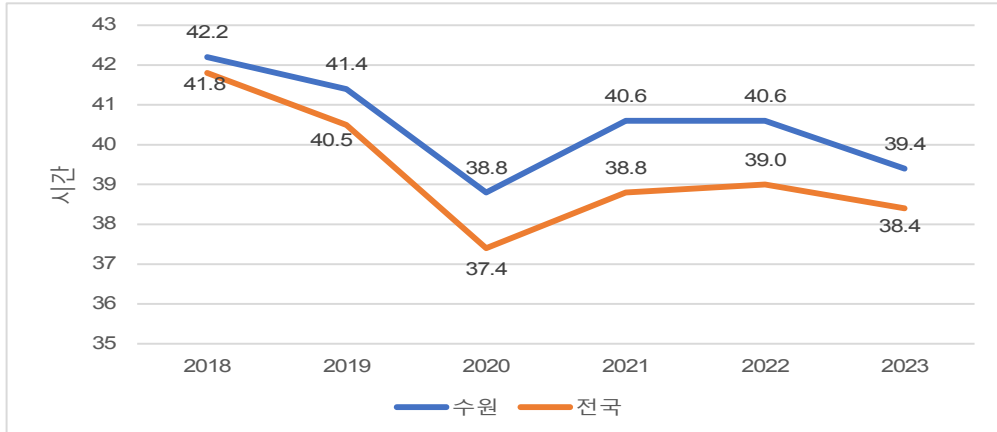
4)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가. 전체 임금노동자

- 2023년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주(週)당 평균노동시간은 39.4시간으로 전년 대비 1.2시간 감소함.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38.4시간과 비교하면 1.0시간 더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 42.2시간과 비교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2.8시간 감소.
- 한국 임금노동자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수원과 전국 모두 처음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수원시는 40시간 이상으로 회복
-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노동시간 감소 추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 근무 상한 적용의 영향으로 추정
 - 다만 2020년은 코로나 19와 조사기간 주중에 공휴일(총선)의 영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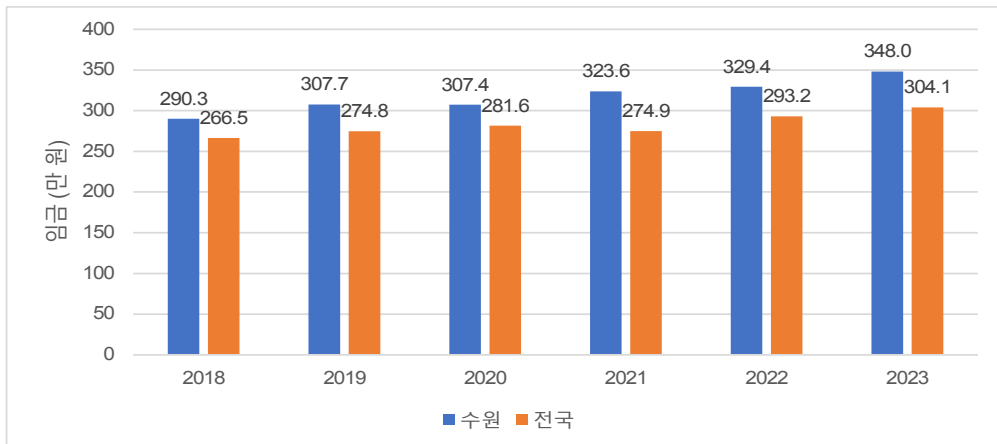
로 노동시간이 더 크게 하락했음.

[그림 2-6] 수원시 주당 노동시간 추이



- 2023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348.0만원으로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304.1만원과 비교하면 약 43.9만원 높은 편

[그림 2-7] 수원시 월 임금 추이



-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은 300만 원으로 전국 270만 원보다 30만 원 더 높게 나타남. 그만큼 전국 대비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고임금 노동자 수가 더 많음을 의미.

-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나. 개인적 특성별 차이

(1) 성별

- 남성 임금노동자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1.2시간, 여성은 36.9시간으로 노동시간의 격차는 남성이 4.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주 36시간 미만 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23.9%로 남성노동자 10.2%에 비해 확연히 높은 편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단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성별 임금격차(여성 노동자 임금/남성 노동자 임금)가 64.7%인데 반해 성별 노동시간 격차는 89.7%임. 성별 임금격차는 남녀간 노동시간의 길고 짧음에도 원인이 있지만, 노동시간이 남녀간 임금격차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전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64.6%, 노동시간 격차는 87.3%로 수원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표 2-10]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성별	수원시		전국	
	월 임금 (만원)	주당노동시간	월 임금(만원)	주당노동시간
남자	409.5	41.2	363.0	40.8
여자	264.9	36.9	234.6	35.6
전체	348.0	39.4	304.1	38.4

[표 2-11]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여부

(단위 : 명)

구분	시간제_36시간미만	전일제_36시간이상	전체
남자	32,346 (10.2%)	284,113 (89.8%)	316,459 (100.0%)
여자	54,691 (23.9%)	174,129 (76.1%)	228,820 (100.0%)
전체	87,037 (16.0%)	458,242 (84.0%)	545,279 (100.0%)

-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남성 중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9.5%인데 반해, 여성 노동자는 24.9%로 높게 나타남.

[표 2-12] 월평균 임금 구간별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	300만원~400만원	400만원~500만원	500만원 이상	전체
남자	9,744 (3.1%)	20,381 (6.4%)	65,407 (20.6%)	68,588 (21.6%)	60,909 (19.1%)	93,240 (29.3%)	318,269 (100.0%)
여자	19,450 (8.2%)	39,505 (16.7%)	95,708 (40.6%)	45,764 (19.4%)	15,910 (6.7%)	19,645 (8.3%)	235,982 (100.0%)
전체	29,194 (5.3%)	59,886 (10.8%)	161,115 (29.1%)	114,352 (20.6%)	76,819 (13.9%)	112,885 (20.4%)	554,251 (100.0%)

- 시간제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일제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시간제 노동자보다 더 큼.
 - 1주 36시간 이상 노동자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69.7%이고,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72.5%. 여성 전일제 노동자가 여성 시간제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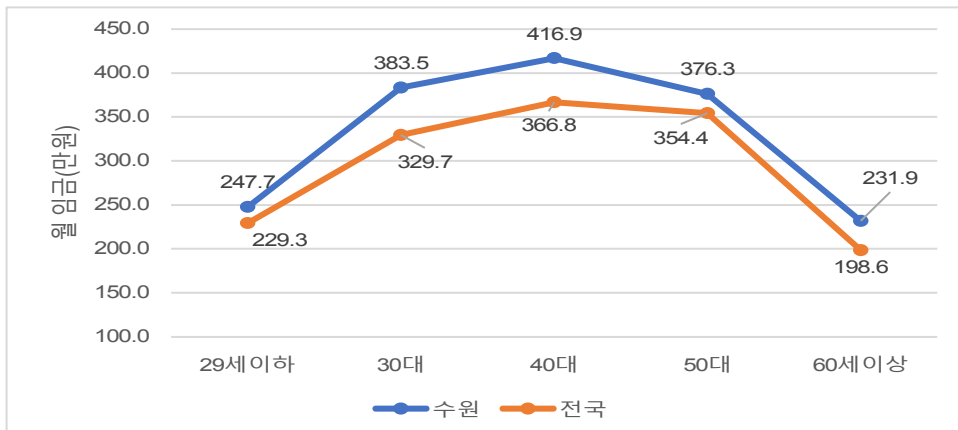
[표 2-13]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월 평균임금

전일시간	성별	월 임금(만원)	성별 임금격차
시간제 : 36시간 미만	남자	204.7	72.5%
	여자	148.3	
전일제 : 36시간 이상	남자	432.8	69.7%
	여자	301.8	
전체	남자	409.5	64.7%
	여자	265.1	

(2) 연령대별

- 연령대별로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40대의 월 평균임금이 416.9만 원으로 가장 높고, 40대와 멀어질수록 임금 수준이 낮아짐
 - 50대가 376.3만 원, 30대가 383.5만 원, 20대가 247.7만 원, 60대 이상이 231.9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대비 수원시의 임금 수준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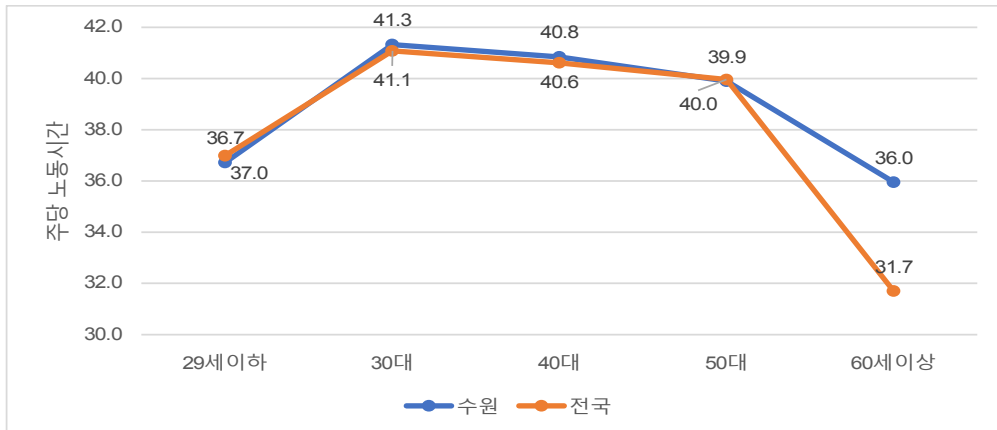
[그림 2-8] 연령대별 월 임금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노동시간은 임금보다 연령대별로 격차가 크지 않음. 30대의 노동시간이 41.3시간으로 가장 길며, 그 다음이 40대, 50대, 20대 순서로 나타남.

[그림 2-9]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



- 60대 미만 연령층의 노동시간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거의 격차가 없는 편임. 다만 60대 이상에서 수원시의 주당 노동시간은 36.0시간으로 전국 평균 대비 확연히 긴 편임.
- 연령대별-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대에서 남녀간에 격차가 가장 적고, 40대, 50대에서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재진입하여도 예전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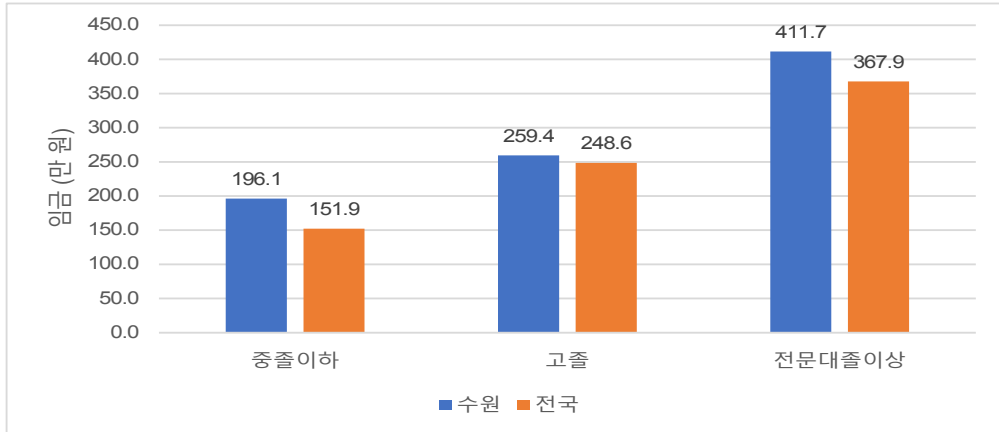
[표 2-14]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연령대별 평균임금

연령대	성별	평균(만원)	성별 임금격차
20대 이하	남자	259.0	91.8%
	여자	237.9	
30대	남자	428.9	71.7%
	여자	307.4	
40대	남자	504.4	59.4%
	여자	299.6	
50대	남자	462.4	56.4%
	여자	261.0	
60대 이상	남자	269.2	62.6%
	여자	168.6	
전체	남자	409.5	64.7%
	여자	264.9	

(3)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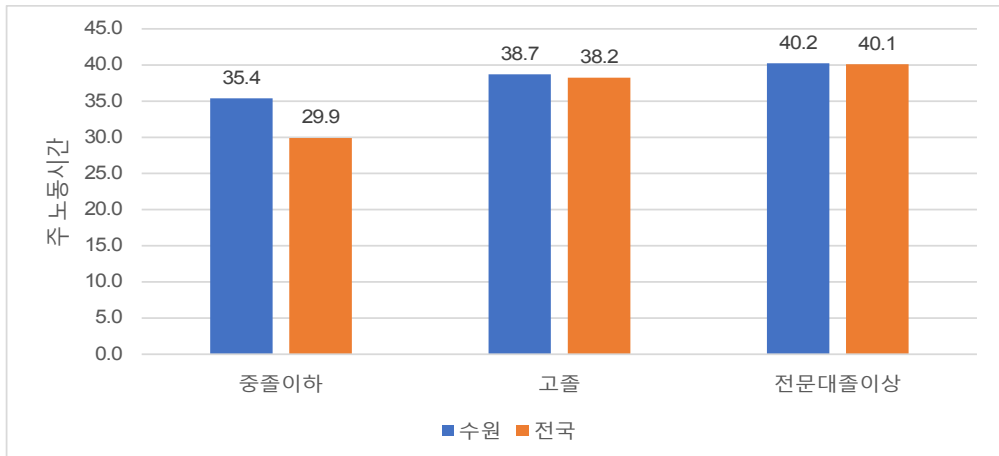
-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96.1만 원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47.6%에 불과

[그림 2-10] 학력별 월 임금



- 노동시간도 학력과 정의 관계를 갖기는 하지만 임금처럼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음.

[그림 2-11]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4) 근무기간별

-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월 평균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노동시간에서는 근무기간과의 상관

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편임.

-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이 좋은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다는 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15] 근무기간별 임금 및 주 노동시간

구분	수원		전국	
	임금(만 원)	주 노동시간	임금(만 원)	주 노동시간
6개월이하	247.8	36.3	199.8	32.9
1년이하	275.3	37.4	253.9	38.3
5년이하	315.1	39.5	280.1	39.5
10년이하	372.7	41.4	332.4	40.9
10년초과	493.2	41.7	447.1	41.4
전체	348.0	39.4	304.1	38.4

(5) 종사상 지위별

- 수원시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84.4만 원으로 임시직 171.5만 원 대비 2배 이상 많으며 일용직 214.7만 원보다 170만 원 이상 높은 편.
 - 임시직의 월 평균임금은 상용직의 44.6%, 일용직은 55.8% 수준임.
- 주당 노동시간도 임시직과 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각 70.2%와 81.7%로 월 평균임금보다는 그 비율이 높음.
 - 임금 대비 노동시간 격차가 작다는 점에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시급액이 상용직 대비 낮다는 점을 의미.

[표 2-16] 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종사상 지위	수원시		전국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시간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시간
상용직	384.8	41.4	355.3	41.6
임시직	171.5	29.1	152.6	28.7
일용직	214.6	33.9	188.7	32.1
전체	348.0	39.4	304.1	38.4

다. 산업별 차이

- 산업별로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월 평균 493.6만 원임.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 479.4만 원, ‘제조업’ 416.3만 원 순서임.
-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07.5만 원, ‘예술스포츠여가업’이 217.5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30.2만 원 순서임.

[표 2-17] 임금노동자 산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산업	수원시		전국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농업, 임업 및 어업	-	-	212.9	38.3
광업	-	-	373.9	43.9
제조업	416.3	41.7	360.1	4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68.4	40.0	466.7	40.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04.5	40.9	329.8	41.6
건설업	339.6	42.2	332.7	40.4
도매 및 소매업	285.1	37.9	283.3	38.9

산업	수원시		전국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운수 및 창고업	286.7	40.1	322.2	42.3
숙박 및 음식점업	207.5	35.0	184.2	35.1
정보통신업	438.4	39.8	410.2	40.7
금융 및 보험업	479.4	40.0	433.4	39.9
부동산업	253.0	40.4	266.0	4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3.6	41.1	436.8	40.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2.7	39.6	242.0	39.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1.3	39.6	298.1	36.1
교육 서비스업	321.9	35.2	298.6	3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1.5	36.8	217.3	3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7.5	37.0	234.4	3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0.2	38.4	243.1	38.5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	112.3	26.7
국제 및 외국기관	-	-	409.9	39.7
전체	348.0	39.4	304.1	38.4

- 수원시에서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2023년 평균임금은 416.3만 원으로 전년도 390.8만 원보다 25.5만 원 상승함.
 - 2023년 전국의 제조업 평균임금 360.1만 원보다는 56만 원 이상 높은데, 이는 수원시 인근에 전자 및 자동차관련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두 번째 규모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2023년 평균임금은 493.6만 원으로 수원시 평균임금 348.4만원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자수가 세 번째로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임금은 261.5만 원으로 전국 217.3만 원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 중에서 숙박및음식점업(207.5만 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217.5만 원),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230.2만 원) 산업의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임을 확인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들의 경우에는 업종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활임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최저임금제도와 병행하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주 또는 노동자들에게 낮은 인건비/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 내 임금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지역 내 소비생활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
- 주당 노동시간은 임금처럼 격차가 크지 않음. 건설업이 42.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교육 서비스업이 35.2시간으로 가장 짧아 그 격차는 7시간.

라. 직종별 차이

- 직종별로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관리자’로 663.3만 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449.8만 원, ‘사무종사자’ 373.9만 원 순이었음.

[표 2-18] 임금노동자 직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직종	수원시		전국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관리자	663.3	40.3	671.8	4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9.8	40.4	385.7	39.7
사무 종사자	373.9	40.8	346.4	40.3
서비스 종사자	211.7	34.4	202.9	35.2
판매 종사자	280.1	36.2	247.3	3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58.7	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2.9	41.5	319.3	41.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44.8	43.5	322.5	43.0
단순노무 종사자	183.9	35.8	162.7	32.1
전체	348.0	39.4	304.1	38.4

- 산업에서 고임금업종인 전문연구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183.9 만원임. 전년도 183.6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로 211.7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음
- ‘관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임금격차는 월 479.4만 원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임금은 ‘관리자’의 27.7% 수준.
- 노동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종으로 1주에 43.5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고, 가장 적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34.4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
 -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직종별로 노동시간의 격차는 있으나 그 격차가 임금격차만큼 크지 않음

-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관리자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 평균임금이 높고 관리자와 서비스, 판매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마.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은 높아지는 것이 확인. 수원시 5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이 213.2만 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은 530.4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0.2%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주당 노동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5인 미만 사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이 34.3시간으로 300명 이상 사업체 노동시간 42.1시간에 비해 7.8시간 짧은 편.

[표 2-19]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사업체 규모	수원시		전국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월 평균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1~4명	213.2	34.3	202.3	34.5
5~9명	255.1	37.5	246.6	37.1
10~29명	306.1	39.0	282.0	38.2
30~99명	343.1	40.3	317.6	39.5
100~299명	376.2	41.7	362.2	41.0
300명 이상	530.4	42.1	461.8	41.4
전체	348.0	39.4	304.1	38.4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앞서 분류한 원칙에 따라 수원시 임금노동자 554,250명의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363,175명이 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은 191,075명.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5%

[표 3-1]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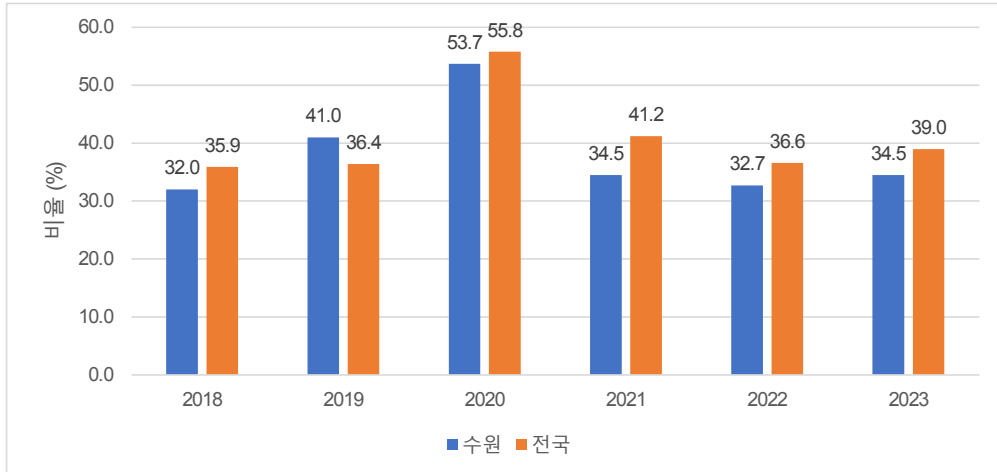
구분		상용	임시	일용	전체
고용 계약	정함	64,580	36,694	15,045	116,319
	정하지 않음	387,767	35,018	15,146	437,931
노동 시간	시간제_36미만	33,938	40,805	12,294	87,037
	전일제_36이상	410,320	30,434	17,488	458,242
정규직		363,175	0	0	363,175
비정규직		89,172	71,711	30,191	191,075
전체		452,347	71,711	30,191	554,250

* 상용직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중복 제거

- 2018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8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2.0%에서 2020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53.7%로 증가. 2021년에는 34.5%로 하락한 후 2022년에는 다시금 약간 하락해 32.7%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약간 증가함.
 - 2020년 상반기 비정규직 노동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19 때문에 주

36시간 미만 상용직이 급증했기 때문임.

[그림 3-1]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나. 성별 차이

-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 남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2023년 29.4%로 전년도 27.0% 대비 약간 증가. 전국 남성 비정규직 비율 32.3%와 비교했을 때 수원시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조금 낮은 편.
- 수원시 여성 비정규직 비율도 2023년 41.3%로 전년도 40.6% 대비 약간 증가함. 전국 여성 비정규직 비율 47.0%보다는 낮음.

[표 3-2] 임금노동자 성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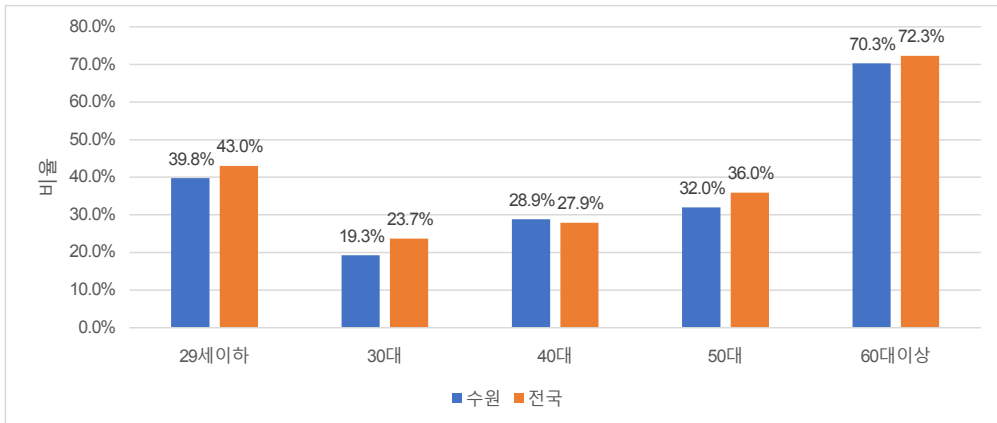
(단위 : 명)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a)	전체노동자(b)	(a/b)
수원	남성	224,760	93,508	318,268	29.4%
	여성	138,415	97,567	235,982	41.3%
전국	남성	7,994,469	3,812,140	11,806,609	32.3%
	여성	5,289,278	4,697,657	9,986,935	47.0%

다.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19.3%로 가장 낮았으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2]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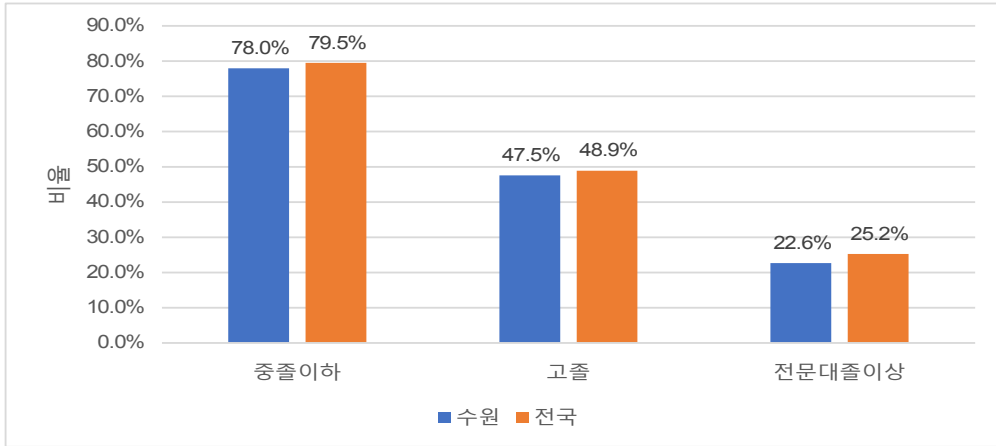
- 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39.8%로 거의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노동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 20대 이하 전국 평균 43.0%와 확연히 낮은 수준임.

-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은 70.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0년 71.4%, 2021년 67.0%, 2022년 6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다시금 증가함.
 - 6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정년퇴임 연령 이후의 재취업이라는 점, 신체적 기능 저하로 장시간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60세 이후 정규직 고용 기회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은 70%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대와 함께 고령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화 보다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근무여건 개선(휴식휴게시간의 충분한 보장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권리 등)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

라. 학력별 차이

-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에서는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는 사실상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결과. 즉,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령층 노동자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 수원시 고졸의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 이하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 1.4%p 낮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6%p 낮음.
 - 중졸 이하 노동자의 78.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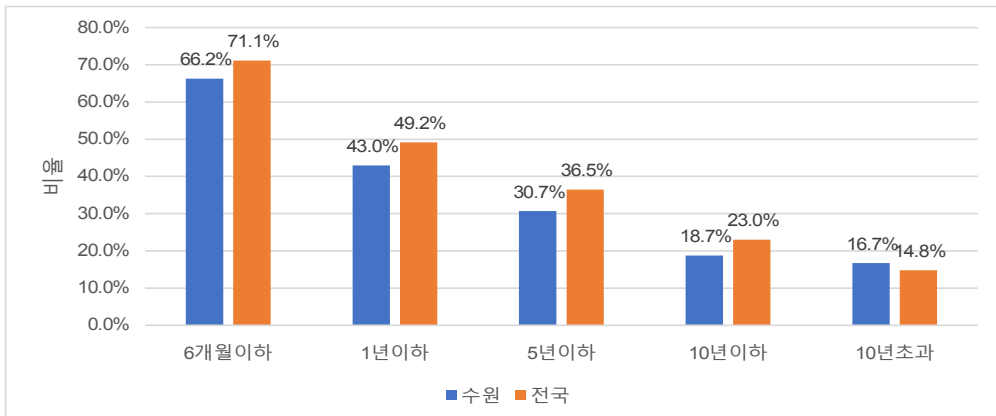
[그림 3-3]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마. 근속별 차이

- 수원시 노동자의 근속별 비정규직 비율을 확인한 결과 취업 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까지 근무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수인데다, 단기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

[그림 3-4] 사업체 근속 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 수원시 노동자의 현 직장 근속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일관되게 낮아지고 있음
 - 아울러 전국의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했을 때, 10년 초과 근속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한 사업장에서 근속 10년 초과인 수원시 장기근속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16.7%로 전년도 13.5%보다 약간 높아짐. 전국 평균도 전년도 12.8%보다는 약간 높아진 14.8%이지만 수원시보다는 낮게 나타남.
 - 현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임시일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통계청의 조사지침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는 노동자로 추정(통계청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미가입이거나, 퇴직금 미지급 대상 등 공식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분류)

바. 산업별 차이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수원시에서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2023년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16.3%로 나타남. 두 번째로 노동자수가 많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비정규직 비율이 10.4%로 전년도 12.4%에서 2%p 낮아짐.
 - 노동자 규모가 3번째로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도 비정규직 비율이 44.1%로 전국 51.6%보다 낮은 편임.

[표 3-3] 임금노동자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단위 : 명)

산업	수원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수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노동자수	비정규직 비율
농림어업	-	-	61,458	71.1%
광업	-	-	794	11.5%
제조업	17,716	16.3%	728,757	18.2%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5	26.5%	8,984	11.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326	48.5%	36,870	26.2%
건설업	22,964	58.5%	886,650	52.8%
도소매업	14,736	36.2%	780,526	36.7%
운수및창고업	11,351	48.2%	321,341	33.9%
숙박 및 음식점업	18,313	60.0%	933,609	65.1%
정보통신업	4,513	15.6%	176,585	19.5%
금융보험업	4,746	31.2%	292,632	38.8%
부동산업	4,822	45.7%	200,532	52.2%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7,070	10.4%	206,510	17.6%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업	22,866	55.9%	782,006	59.4%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3,293	14.6%	410,120	32.4%
교육서비스업	19,820	43.6%	690,461	42.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803	44.1%	1,430,037	51.6%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6,986	84.1%	211,557	59.3%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8,393	47.1%	270,441	41.5%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	77,902	9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028	12.1%
합계	191,074	34.5%	8,509,800	39.0%

- 수원시 뿐 아니라 대체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8시간의 표준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

은 편.

- 2023년 1만 명 이상이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수원시 평균(34.5%)보다 높은 산업으로는 건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임.
 - 반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업종.
- 노동자 규모 1만 명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평균과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해보면 건설업, 운수및창고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음.
 - 노동자 규모 1만 명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기가스증기업, 예술스포츠 여가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편임.

사. 직종별 차이

- 수원시의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21.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 사무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17.0로 전년도 14.4%에서 약간 높아졌으며, 제조업 기능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도 비정규직 비율은 18.5%로 전년도 20.2%에서 약간 낮아짐
- 반면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직업 중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단순노무종사자는 75.9%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표 3-4] 임금노동자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단위 : 명)

직업	수원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수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노동자수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0		61,742	13.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7,952	21.5%	1,314,310	25.4%
사무종사자	21,258	17.0%	834,818	17.9%
서비스종사자	30,965	56.6%	1,415,283	58.9%
판매종사자	17,415	51.5%	819,310	53.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3,626	52.5%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23,891	47.4%	717,544	41.6%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7,665	18.5%	480,085	22.5%
단순노무 종사자	51,928	75.9%	2,833,079	77.8%
합계	191,074	34.5%	8,509,800	39.0%

- 직종별-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율이 높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직종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이 가장 뚜렷한 직종은 ‘판매종사자’로 나타남.

[표 3-5] 수원시 임금노동자 직종별-성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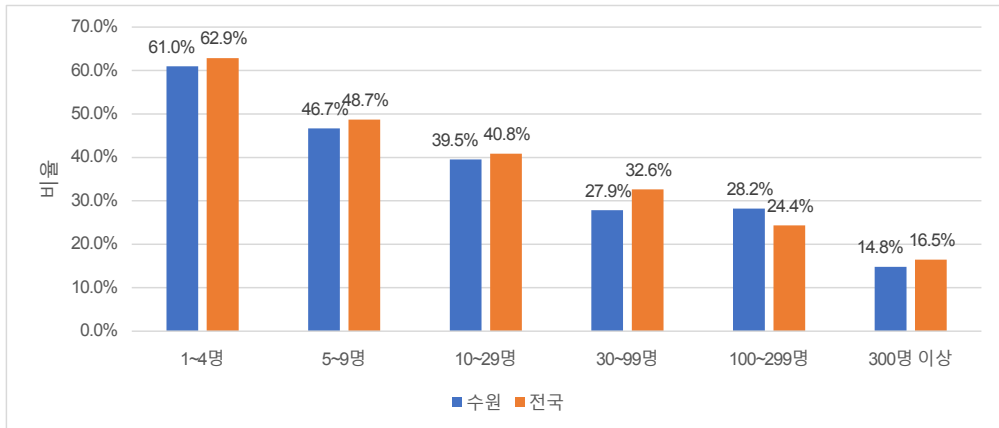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정규직(%)	남성 대비 여성의 '비정규직/정규직'
관리자	남자	2,711	-	-	-
		100.0%	-	-	
	여자	916	-	-	
		100.0%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남자	89,455	16,464	18.4	2.37
		84.5%	15.5%		
	여자	49,160	21,488	43.7	
		69.6%	30.4%		
사무종사자	남자	52,099	10,444	20.0	1.04
		83.3%	16.7%		
	여자	51,867	10,814	20.8	
		82.7%	17.3%		
서비스종사자	남자	11,538	7,962	69.0	2.73
		59.2%	40.8%		
	여자	12,189	23,003	188.7	
		34.6%	65.4%		
판매종사자	남자	9,937	4,854	48.8	3.97
		67.2%	32.8%		
	여자	6,481	12,561	193.8	
		34.0%	66.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남자	-	-	-	-
		-	-	-	
	여자	-	-	-	
		-	-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남자	25,128	22,154	88.2	1.45
		53.1%	46.9%		
	여자	1,355	1,737	128.2	
		43.8%	56.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남자	27,192	6,377	23.5	0.83
		81.0%	19.0%		
	여자	6,638	1,288	19.4	
		83.7%	16.3%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정규직(%)	남성 대비 여성의 '비정규직/정규직'
단순노무종사자	남자	6,699	25,253	377.0	0.72
		21.0%	79.0%		
	여자	9,811	26,675	271.9	
		26.9%	73.1%		
전체	남자	224,759	93,508	41.6	1.69
		70.6%	29.4%		
	여자	138,417	97,566	70.5	
		58.7%	41.3%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61.0% 인데 반해,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14.8%로 4배 이상의 차이.
 -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별 고용조사는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파악하지 않음.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4.8%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
- 수원시의 100인 이상~300인 미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
 -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14.8%로 전국 평균 16.5%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그림 3-5]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만, 오히려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수원시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

2)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비교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먼저 정규직의 경우 2020년 371.3만 원에서 2023년에는 41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3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정규직 임금이 정체된 상태였는데 2023년 들어서 큰 폭으로 오름.
-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20년 252.3만 원에서 2023년 228.7만 원으로 약 23만 원 가량 낮아짐. 전년과 비교시에는 12.6만 원 가량 높아졌지

만 지난 2020년과 비교 시에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

[표 3-6] 2020년~2023년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2023년
월평균 임금 (만원)	정규직(a)	371.3	384.9	384.4	410.7	371.9
	비정규직(b)	252.3	207.5	216.1	228.7	198.4
	평균	307.4	323.6	329.4	348.0	304.1
	b/a(%)	68.0%	53.9%	56.2%	55.7%	53.4%

- 2020년 수원시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36시간 미만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임금도 크게 높아졌음. 이는 2019년까지 정규직(상용직)이었던 노동자가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시간이 단축·감소되면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크게 끌어올린 것.
-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정규(상용)직 36시간 미만자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급감함.

- 노동시간을 고려한 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후술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시급을 계산하여 비교
 - 이 보고서에서 시급액은 아래의 산식에 입각해 산출함.

i)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 노동시간} + \text{유급휴무}8\text{시간}}$$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ii)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노동시간} + 8\text{시간} \times \frac{\text{주당노동시간}}{40\text{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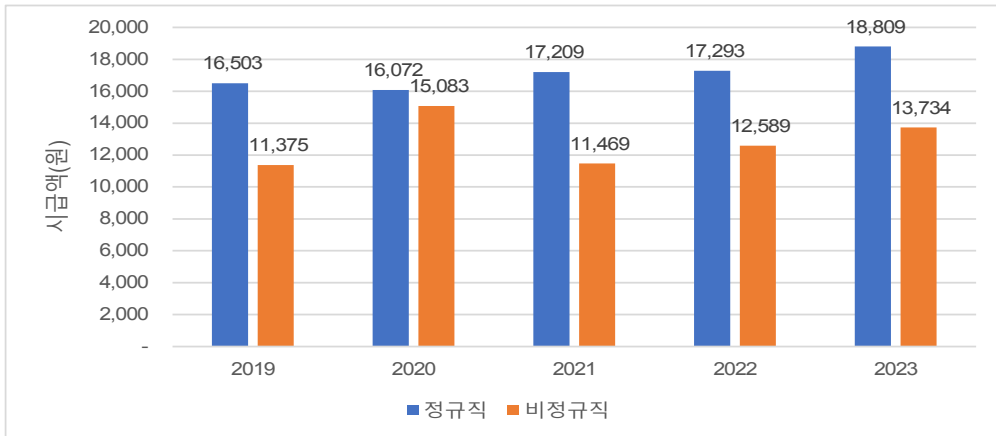
iii)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노동시간}}$$

- 위 산식으로 산출한 시급액은 주휴만 고려한 것으로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은 배제한 채 산출한 시급임. 따라서 실제 시급액은 더 낮을 것.

- 2023년 수원시 노동자 시급은 17,039원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시급은 각각 18,809원과 13,734원이며,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시급은 73.0% 수준임.
- 정규직 평균시급은 2022년 17,293원에서 2023년 18,809원으로 약 1,516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평균시급은 2022년 12,589원에서 1,145원 가량 증가한 13,734원으로 정규직 시급액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그림 3-6]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시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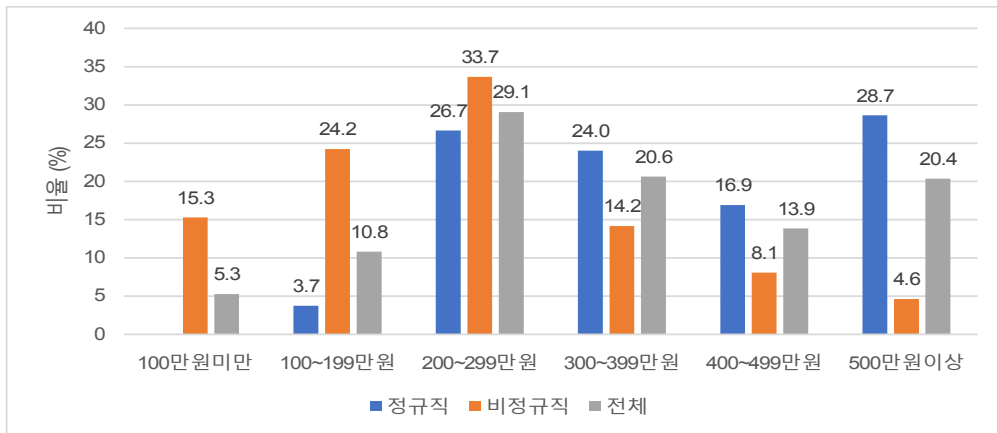


* 시급계산에서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

-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분포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고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살펴봄
 -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209시간 기준 월 201만580원임.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의 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층으로 확인하였고 100만원 단위로 고용형태별 노동자 분포를 확인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20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비율은 16.1%로 전년 16.9% 대비 약간 감소함. 정규직은 3.7%인 반면, 비정규직은 39.5%가 월 200만 원 미만으로서 정규직은 200만원 미만자 비율치가 전년 (2.9%) 대비 약간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전년도 44.9%에서 약간 감소함.
 - 반면 월 500만 원 이상은 정규직은 28.7%인 반면, 비정규직은 4.6%에 불과.
 - 비정규직은 100만원 초과~3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전체의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데 반해, 정규직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5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백만 원 단위로 구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살펴보아도 약 100만 원 이상의 임금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7]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분포



-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차원의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

나. 성별 차이

- 남성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468.3만원으로 전국 남성 정규직 418.3만원보다도 높았으며, 여성 정규직 평균임금도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수원시의 평균임금이 높은 편. 전반적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임이 드러남.

[표 3-7]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단위 : 만원)

고용형태	수원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468.3	317.2	418.3	301.7
비정규직	268.3	190.7	247.0	159.0

- 수원시 남성 정규직 임금과 비교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약 277.6만 원 차이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0.7%에 불과.

다. 연령대별 차이

- 수원시 정규직 임금은 40대가 47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430.6만 원, 30대 408.7만 원으로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정규직 임금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정규직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패턴이 나타남.

[표 3-8] 임금노동자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고용형태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수원	정규직(a)	303.8	408.7	474.0	430.6	331.0
	비정규직(b)	162.7	278.0	276.1	260.8	190.0
	평균	247.7	383.5	416.9	376.3	231.9
	b/a(%)	53.6%	68.0%	58.2%	60.6%	57.4%
전국	정규직(a)	279.8	353.9	411.1	420.1	336.3
	비정규직(b)	162.3	251.6	252.5	237.4	145.8

고용형태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평균	229.3	329.7	366.8	354.4	198.6
	b/a(%)	58.0%	71.1%	61.4%	56.5%	43.3%

- 즉,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공급에 따라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정규직이 30대 정규직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음
 - 다만 40대 정규직이 가장 높은 것은, 50대 정규직 중에서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한 정규직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즉,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데, 50대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연공급제 속성의 임금상승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들과, 퇴직 후 과거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혼재되어 같은 연령대의 평균임금을 낮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수원시 비정규직 평균임금도 30대가 278.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의 순서였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30대에서 가장 적고,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3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같은 연령대 정규직 노동자의 68.0%인데 반해,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6% 수준임.
 - 전국에서는 60대 이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수원에서는 60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57.4%로 전국 대비 14.1%p 높은 편. 수원은 업종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산업에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는데, 이 산업 및 직종에서 퇴직한 노

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라. 학력별 차이

- 학력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모든 학력에서 수원시 노동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보임. 다만,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수원시 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9]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단위 : 만 원)

고용형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수원	정규직(a)	250.6	310.4	451.4
	비정규직(b)	180.7	203.1	275.9
	평균	196.1	259.4	411.7
	b/a(%)	72.1%	65.4%	61.1%
전국	정규직(a)	249.3	308.5	405.5
	비정규직(b)	126.9	185.9	256.1
	평균	151.9	248.6	367.9
	b/a(%)	50.9%	60.3%	63.2%

-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면, 전국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적고,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수원시는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격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음.
 - 중졸이하 수원시 저학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마. 근속별 차이

- 근속별 차이를 보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1년 이하의 재직기간을 가진 경우 정규직 대비 50% 후반에서 60% 수준인데 반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은 60%대 후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0년 초과에서 임금 격차 수준이 58.7%로 낮아짐.
- 전국과 비교 시 근속 6개월 이하에서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수준이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속 6개월 이상 ~ 1년 이하와 10년 초과에서 전국 대비 임금격차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0]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고용형태		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	1~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초과
수원	정규직(a)	336.1	339.3	351.2	395.3	529.7
	비정규직(b)	202.9	190.3	233.8	274.6	311.0
	평균	247.8	275.3	315.1	372.7	493.2
	b/a(%)	60.4%	56.1%	66.6%	69.5%	58.7%
전국	정규직(a)	295.5	309.2	320.2	359.0	470.6
	비정규직(b)	160.9	196.8	210.4	243.3	311.2
	평균	199.8	253.9	280.1	332.4	447.1
	b/a(%)	54.5%	63.7%	65.7%	67.8%	66.1%

바. 산업별 차이⁶⁾

- 수원시에서 가장 임금노동자 수가 많은 제조업의 임금을 보면, 정규직 임금은 439.9만 원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294.7만 원임.
 - 수원시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인데, 수원시 인근의 전자 및 자동차 관련 제조대기업 사업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50% 미만인 산업은, ‘전기가스 증기및공급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으로 각 43.9%, 48.8%, 42.4%임.

[표 3-11]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농림어업	정규직(a)	-	325.1	부동산업	정규직(a)	299.5	321.3
	비정규직(b)	-	167.2		비정규직(b)	197.8	215.3
	b/a(%)	-	51.4%		b/a(%)	66.0%	67.0%
광업	정규직(a)	-	375.5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규직(a)	510.1	457.9
	비정규직(b)	-	362.1		비정규직(b)	351.8	337.9
	b/a(%)	-	96.4%		b/a(%)	69.0%	73.8%
제조업	정규직(a)	439.9	381.7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	정규직(a)	308.4	301.5
	비정규직(b)	294.7	262.8		비정규직(b)	208.8	201.3
	b/a(%)	67.0%	68.8%		b/a(%)	67.7%	66.8%

6) 산업별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전기·가스·증기 및 공급업	정규직(a)	432.8	484.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정규직(a)	394.5	382.2
	비정규직(b)	190.0	325.8		비정규직(b)	167.4	122.9
	b/a(%)	43.9%	67.3%		b/a(%)	42.4%	32.2%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정규직(a)	326.2	351.9	교육서비스업	정규직(a)	409.3	382.7
	비정규직(b)	281.5	267.5		비정규직(b)	208.7	185.9
	b/a(%)	86.3%	76.0%		b/a(%)	51.0%	48.6%
건설업	정규직(a)	412.9	395.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규직(a)	323.5	311.5
	비정규직(b)	287.6	277.1		비정규직(b)	182.8	128.9
	b/a(%)	69.7%	70.2%		b/a(%)	56.5%	41.4%
도소매업	정규직(a)	335.0	338.4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정규직(a)	234.4	313.0
	비정규직(b)	197.1	188.4		비정규직(b)	214.3	180.4
	b/a(%)	58.8%	55.7%		b/a(%)	91.4%	57.6%
운수 및 창고업	정규직(a)	339.4	362.5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정규직(a)	278.4	292.1
	비정규직(b)	229.9	243.7		비정규직(b)	175.9	174.0
	b/a(%)	67.7%	67.2%		b/a(%)	63.2%	59.6%
숙박 및 음식점업	정규직(a)	299.6	274.6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정규직(a)	-	250.0
	비정규직(b)	146.2	135.7		비정규직(b)	-	112.1
	b/a(%)	48.8%	49.4%		b/a(%)	-	44.8%
정보통신업	정규직(a)	458.1	431.2	국제 및 외국기관	정규직(a)	-	416.9
	비정규직(b)	331.7	323.4		비정규직(b)	-	359.1
	b/a(%)	72.4%	75.0%		b/a(%)	-	86.1%
금융보험업	정규직(a)	517.2	512.0	전체	정규직(a)	410.7	371.9
	비정규직(b)	395.9	309.4		비정규직(b)	228.7	198.4
	b/a(%)	76.6%	60.4%		b/a(%)	55.7%	53.4%

사. 직종별 차이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정규직간 가장 임금격차가 적은 직종

은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83.9%. 가장 임금 격차가 큰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56.1%에 불과

[표 3-12] 직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구분		수원	전국
관리자	정규직(a)	663.3	672.5
	비정규직(b)		667.7
	b/a(%)		99.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정규직(a)	492.8	422.6
	비정규직(b)	292.8	277.3
	b/a(%)	59.4%	65.6%
사무 종사자	정규직(a)	393.3	368.1
	비정규직(b)	279.2	246.2
	b/a(%)	71.0%	66.9%
서비스 종사자	정규직(a)	281.6	292.1
	비정규직(b)	158.0	140.5
	b/a(%)	56.1%	48.1%
판매 종사자	정규직(a)	336.6	310.5
	비정규직(b)	226.8	192.6
	b/a(%)	67.4%	6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정규직(a)		289.6
	비정규직(b)		230.8
	b/a(%)		79.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정규직(a)	349.6	348.5
	비정규직(b)	293.4	278.3
	b/a(%)	83.9%	7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정규직(a)	358.3	343.1
	비정규직(b)	284.9	251.4
	b/a(%)	79.5%	73.3%
단순노무 종사자	정규직(a)	240.7	247.4

구분		수원	전국
	비정규직(b)	165.9	138.5
	b/a(%)	68.9%	56.0%

- 전국 수준에서는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고 숙련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직종 노동자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적게 나타남.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각 79.8%와 73.3%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
- 전국 수준에서도 ‘서비스 종사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큼.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커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적어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규모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 대비 58%대의 임금을 받는데 반해, 300인 미만 규모까지는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78.3%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300인 이상에서는 60.4%로 격차가 확대.
 -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29.7%로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임금 격차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수원시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표 3-13]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고용형태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수원	정규직(a)	284.6	316.8	355.6	379.3	400.7	563.3
	비정규직(b)	167.5	184.6	230.3	249.3	313.8	340.3
	평균	213.2	255.1	306.1	343.1	376.2	530.4
	b/a(%)	58.8%	58.3%	64.7%	65.7%	78.3%	60.4%
전국	정규직(a)	283.8	311.1	340.6	364.1	393.3	486.8
	비정규직(b)	154.1	178.7	197.1	221.6	265.7	335.2
	평균	202.3	246.6	282.0	317.6	362.2	461.8
	b/a(%)	54.3%	57.4%	57.9%	60.9%	67.5%	68.9%

- 전국 수준에서 살펴보아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는 수원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100인 이상~300인 미만에서 수원시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전국 대비 높아 임금 격차도 적은 편.

자.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 앞서 살펴본 시급액([그림 3-6] 참조)을 이용해 수원시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을 살펴봄.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임금은 단순 총액만을 파악하기에 엄밀하게 계산된 시급액은 아니지만 시급액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음.
 - 특히 앞서 산출된 시급액은 주휴만 고려하고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시급액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산출된 시급액임.

- 수원시의 2023년 최저임금(9,620원) 미만자 규모는 108,438명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 554,250명중 19.6%로 전년도 16.7% 대비 높아짐.
 - 전국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는 5,316,604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중 24.4%로 전년도 22.7%보다 약간 높아짐.
-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을 보면 수원, 전국 모두 여성 비율이 60%를 넘고 있음.

[표 3-14] 수원시 최저임금 미만자의 인적 특성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성	남성	43,312	39.9	1,711,404	32.2
	여성	65,126	60.1	3,605,200	67.8
연령	29세이하	27,614	25.5	1,238,577	23.3
	30대	11,170	10.3	653,810	12.3
	40대	12,247	11.3	741,466	13.9
	50대	27,033	24.9	1,000,500	18.8
	60세이상	30,375	28.0	1,682,251	31.6
전체		108,438	100.0	5,316,604	100.0

- 연령대별로 보면 수원, 전국 모두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합산 비율이 1/2을 넘고 있음.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와 고령층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연령대를 주로 고용하는 업종·직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미만자 비율이 전국 대비 낮은 반면에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에서 전국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높음.

[표 3-15]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농림어업	-	-	34,776	0.7
광업	-	-	596	0.0
제조업	11,392	10.5	609,892	11.5
전기가스증기업	355	0.3	5,858	0.1
하수원료재생업	454	0.4	15,621	0.3
건설업	4,480	4.1	209,739	3.9
도소매업	9,330	8.6	592,109	11.1
운수창고업	6,445	5.9	170,545	3.2
숙박음식점업	12,924	11.9	730,745	13.7
정보통신업	710	0.7	98,340	1.8
금융업	870	0.8	122,658	2.3
부동산업	4,273	3.9	104,816	2.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040	3.7	131,048	2.5
사업시설관리업	19,180	17.7	394,808	7.4
공공행정	4,861	4.5	318,572	6.0
교육서비스업	6,692	6.2	312,414	5.9
보건복지서비스업	11,473	10.6	1,088,588	20.5
예술스포츠여가업	4,655	4.3	115,547	2.2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6,305	5.8	214,139	4.0
자가소비및기타	-	-	44,779	0.8
국제기구	-	-	1,013	0.0
전체	108,438	100.0	5,316,604	100.0

-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가 1만명이 넘는 수원시 업종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임.
- 직업별 최저임금 미만자를 보면 단순노무자 직종이 3만 9천여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미만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직종은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자 직종.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주력 직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음.

[표 3-16] 직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관리자	-	-	22,610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682	10.8	659,154	12.4
사무 종사자	15,722	14.5	717,607	13.5
서비스 종사자	22,144	20.4	1,059,045	19.9
판매 종사자	7,511	6.9	527,018	9.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11,897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338	5.8	246,325	4.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168	4.8	337,608	6.4
단순노무 종사자	39,873	36.8	1,735,339	32.6
전체	108,438	100.0	5,316,604	100.0

-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가 1만명이 넘는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3)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비교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주당 노동시간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2020년 44.0시간에서 2023년 42.5시간으로 1.5시간 감소.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2020년 34.4시간에서 2023년 33.7시간으로 0.7시간 감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규직의 감소폭이 비정규직보다 큼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34시간 대로 줄어든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편.

[표 3-17]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2023년
주당 노동 시간	정규직	44.0	43.6	43.7	42.5	42.7
	비정규직	34.4	34.8	34.1	33.7	31.8
	평균	38.8	40.6	40.6	39.4	38.4

- 향후 노동시간 감소 경향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한시적 추가연장 근로 기한 연장과 연장 근로시간 산출 기준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경향은 당분간은 주춤할 것으로 판단.

나. 성별 차이

- 수원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별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주당노동시간은 42.5시간으로 전년도 42.4시간과 거의 동일. 여성 33.7시간보다는 일주일에 약 8.8시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수원의 노동시간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여성은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수원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43.1	41.4	43.2	41.9
비정규직	36.7	30.9	35.7	28.6
평균	42.5	33.7	42.7	31.8

-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5.8시간으로 성별 노동시간 격차가 더 커짐.
- 그리고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차이가 전년(6.6시간)과 비교해 6.4시간으로 약간 감소함.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간 차이도 전년도 12시간 차이에서 1.5시간 감소함.

[표 3-19] 수원시의 고용형태별-성별 노동시간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44.5	42.9	44.0	42.7	44.2	42.9	43.1	41.4
비정규직	36.7	32.0	39.2	31.3	37.6	30.9	36.7	30.9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년 대비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원시 여성 비정규직과 전국 여성 비정규직 노동시간 격차는 전년

도 1.6시간에서 2.3시간으로 더 커지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이 드러내는 함의는 기존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의 경험과 이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반면, 남성들은 가사업무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기에 비정규직들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 이후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간 추이를 보면 정규직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지난 4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편임.
 -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정규직에서는 노동시간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여성의 노동시간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다. 연령대별 차이

- 정규직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43.3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대 이하가 41.8시간으로 가장 짧아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규직 노동시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음
 - 60세 이상의 경우 정규직은 (최상층) 관리자가 다수이면서, 노동시간이 길었을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짐
- 비정규직의 경우 30대가 38.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대 이하는 28.9시간으로 가장 노동시간이 짧음

[표 3-20]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수원	정규직	41.8	42.0	43.0	42.7	43.3
	비정규직	28.9	38.7	35.7	34.1	32.9
	평균	36.7	41.3	40.8	39.9	36.0
전국	정규직	42.4	42.5	42.7	42.7	43.4
	비정규직	29.9	36.6	35.2	35.1	27.2
	평균	37.0	41.1	40.6	40.0	31.7

- 전국 수준에서는 60대 비정규직이 20대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는데, 수원에서는 20대 이하가 더 짧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원은 업종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산업에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는데, 이 산업 및 직종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임금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라. 학력별 차이

- 수원시 노동자의 학력별 노동시간을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 정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임
 -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3.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고졸 43.0시간, 전문대졸 이상은 42.2시간임.

[표 3-21]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수원	정규직	43.4	43.0	42.2
	비정규직	33.1	34.0	33.7
	평균	35.4	38.7	40.2
전국	정규직	44.4	43.5	42.2
	비정규직	26.2	32.7	34.0
	평균	29.9	38.2	40.1

-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긴 편.
- 중졸 이하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은 고령의 저학력 노동자들이 육체적인 부담으로 인해 단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일 가능성
- 한편, 학력이 낮은 정규직은 대체로 시간당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에 소득보전을 위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학력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에 노동시간이 짧을 가능성도 있음
- 정규직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주당노동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당노동시간이 긴 패턴은 전국 평균에서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마. 근속별 차이

- 수원시 정규직은 대체로 주당 노동시간이 42~43시간으로 근속과 크게 상관없이 비슷하였고, 비정규직은 근속 기간 5년 초과에서 노동시간이

확연히 긴 편임.

[표 3-22]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	1~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초과
수원	정규직	43.2	42.0	42.0	42.3	42.9
	비정규직	32.9	31.5	33.9	37.2	35.7
	평균	36.3	37.4	39.5	41.4	41.7
전국	정규직	42.8	43.0	42.7	42.7	42.5
	비정규직	28.9	33.4	33.9	35.0	35.3
	평균	32.9	38.3	39.5	40.9	41.4

- 전국 수준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42~43시간의 노동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6개월 이하 근무기간을 가진 노동자는 28.9시간인데 비해 근속 5년 초과에서는 35시간대로 확연히 긴 편이며 근속이 늘어날수록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임

바. 산업별 차이

-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정규직은 42.9시간, 비정규직은 36시간으로 나타남.
 - 전년도 수원시 제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노동시간 격차는 8.1시간이었음. 올해는 노동시간 격차가 6.9시간으로 감소함. 전년도 대비 정규직 노동자는 43.8시간에서 0.9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약간 증가했기에 나타난 결과.

7) 산업별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시간을 정규직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노동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정규직은 42.1시간, 비정규직은 33.1시간으로 9시간 가량 차이가 있음.
- 노동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간의 차이가 12.7시간으로 매우 큼
 -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42.0시간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30.7시간으로 나타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 산업이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간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임.

[표 3-23]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농림어업	정규직	-	45.1	부동산업	정규직	40.6	43.1
	비정규직	-	35.7		비정규직	40.2	38.5
	평균	-	38.3		평균	40.4	40.7
광업	정규직	-	44.1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정규직	42.1	41.7
	비정규직	-	43.1		비정규직	33.1	35.8
	평균	-	43.9		평균	41.1	40.7
제조업	정규직	42.9	43.0	사업시설관리및지원 임대서비스	정규직	42.4	42.7
	비정규직	36.0	38.2		비정규직	37.5	37.6
	평균	41.7	42.1		평균	39.6	39.7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공 기초 설공 급업	정규직	40.0	41.2	공공 행정, 국방, 사회보 장 행정	정규직	41.7	42.7
	비정규직	40.0	37.3		비정규직	28.5	22.9
	평균	40.0	40.7		평균	39.6	36.1
수도 하수 폐기물 처 리 원료재 생업	정규직	41.6	42.4	교육서비스 업	정규직	40.4	41.0
	비정규직	40.1	39.1		비정규직	29.0	27.0
	평균	40.9	41.6		평균	35.2	34.9
건설업	정규직	44.8	43.0	보건 및 사 회복지서비 스업	정규직	42.0	41.8
	비정규직	40.4	38.1		비정규직	30.7	23.3
	평균	42.2	40.4		평균	36.8	32.2
도소매업	정규직	42.0	42.8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업	정규직	44.2	42.7
	비정규직	30.6	32.1		비정규직	35.7	30.9
	평균	37.9	38.9		평균	37.0	35.6
운수 및 창 고업	정규직	43.3	44.4	협회, 단체, 수 리 및 기타 서비스업	정규직	42.4	43.4
	비정규직	36.8	38.4		비정규직	33.6	31.7
	평균	40.1	42.3		평균	38.4	38.5
숙박 및 음 식점업	정규직	47.3	46.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정규직	-	40.0
	비정규직	26.8	28.9		비정규직	-	26.7
	평균	35.0	35.1		평균	-	26.7
정보통신 업	정규직	41.5	41.7	국제 및 외 국기관	정규직	-	40.5
	비정규직	30.8	36.6		비정규직	-	34.1
	평균	39.8	40.7		평균	-	39.7
금융보험 업	정규직	43.0	41.4	전체	정규직	42.5	42.7
	비정규직	33.5	37.7		비정규직	33.7	31.8
	평균	40.0	39.9		평균	39.4	38.4

사. 직종별 차이

-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무시간 차이가 확연. 비정규직 노동자는 1주 30시간 내외의 노동시간을 보이는 반면에 정규직은 40시간을 초과
- 반면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등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41시간대의 노동을 하고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임

[표 3-24] 직업별-고용형태별 노동시간

구분		수원	전국
관리자	정규직	40.3	42.4
	비정규직		39.3
	전체	40.3	4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정규직	42.3	42.0
	비정규직	33.4	33.0
	전체	40.4	39.7
사무 종사자	정규직	41.6	41.6
	비정규직	37.0	34.3
	전체	40.8	40.3
서비스 종사자	정규직	43.0	44.9
	비정규직	28.1	28.4
	전체	34.4	35.2
판매 종사자	정규직	43.0	43.2
	비정규직	29.7	32.3
	전체	36.2	3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정규직		44.4
	비정규직		40.8
	전체		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정규직	41.9	43.4
	비정규직	41.1	38.9
	전체	41.5	41.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정규직	44.0	44.0
	비정규직	41.8	39.6
	전체	43.5	43.0
단순노무 종사자	정규직	45.9	43.9
	비정규직	32.6	28.7
	전체	35.8	32.1

구분		수원	전국
전체	정규직	42.5	42.7
	비정규직	33.7	31.8
	전체	39.4	38.4

아. 사업체규모별 차이

- 수원시 정규직은 5인 미만 규모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규모에서 43.2시간으로 나타남.
 - 대체로 규모와 상관없이 수원시 정규직은 41시간~43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정규직은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경향. 이는 전국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

[표 3-25]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수원	정규직	43.7	42.8	41.8	41.5	42.7	43.2
	비정규직	28.3	31.6	34.7	37.2	39.4	36.3
	평균	34.3	37.5	39.0	40.3	41.7	42.1
전국	정규직	43.8	42.9	42.4	42.3	42.6	42.5
	비정규직	29.1	31.0	32.1	33.9	35.9	35.8
	평균	34.5	37.1	38.2	39.5	41.0	41.4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1)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가. 거주지 분포

- 2023년 수원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수는 408,493명으로 전년도 433,972명 대비 약 2만5천여 명 감소함. 즉, 수원시의 일자리수가 1년 동안 25,000여개 감소했음을 의미.
 - 같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수보다 약 14만 5천여 명이 적음.
 - 수원시 내 일자리 숫자가 지역 내 임금노동자보다 적는데, 이는 수원시가 경기도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기 때문. 즉, 수원에서 가족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타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
-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수원시가 6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용인시, 서울시의 순서. 수원시 노동자들은 화성시에 약 7만 6천여 명이 일하러 가지만 수원에 일하러 오는 화성시 노동자는 약 3만 6천여 명으로 차이가 두드러짐.

[표 4-1]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거주지

지역	인원(명)	비율(%)	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중로구	289	0.1	경기안양시	5,961	1.5
서울중구	268	0.1	경기부천시	1,653	0.4
서울용산구	1,066	0.3	경기광명시	833	0.2
서울성동구	1,525	0.4	경기평택시	2,688	0.7
서울광진구	198	0.0	경기안산시	6,225	1.5
서울동대문구	175	0.0	경기고양시	1,872	0.5
서울중랑구	1,188	0.3	경기과천시	1,037	0.3
서울성북구	731	0.2	경기구리시	581	0.1
서울강북구	218	0.1	경기남양주시	1,214	0.3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지역	인원(명)	비율(%)	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도봉구	377	0.1	경기도산시	6,964	1.7
서울노원구	718	0.2	경기도시흥시	1,874	0.5
서울은평구	216	0.1	경기도군포시	3,567	0.9
서울서대문구	324	0.1	경기도의왕시	2,936	0.7
서울마포구	341	0.1	경기도하남시	767	0.2
서울양천구	846	0.2	경기도용인시	28,422	7.0
서울강서구	838	0.2	경기도이천시	698	0.2
서울구로구	1,072	0.3	경기도안성시	1,222	0.3
서울금천구	1,297	0.3	경기도김포시	558	0.1
서울영등포구	2,947	0.7	경기도화성시	36,527	8.9
서울동작구	220	0.1	경기도광주시	2,177	0.5
서울관악구	717	0.2	경기도양주시	338	0.1
서울서초구	2,669	0.7	경기도포천시	97	0.0
서울강남구	2,992	0.7	경기도연천군	23	0.0
서울송파구	2,741	0.7	경기도가평군	47	0.0
서울강동구	736	0.2	경기도양평군	87	0.0
대구남구	97	0.0	강원춘천시	133	0.0
인천중구	167	0.0	강원원주시	318	0.1
인천동구	65	0.0	강원속초시	34	0.0
인천연수구	1,170	0.3	강원삼척시	102	0.0
인천남동구	945	0.2	강원홍천군	31	0.0
인천부평구	1,265	0.3	강원경선군	23	0.0
인천계양구	608	0.1	강원양구군	14	0.0
인천서구	559	0.1	충북청주시	252	0.1
인천미추홀구	597	0.1	충남천안시	1,601	0.4
광주광산구	137	0.0	충남공주시	58	0.0
대전서구	391	0.1	충남당진시	183	0.0
경기수원시	256,938	62.9	충남홍성군	42	0.0
경기성남시	9,436	2.3	경남사천시	50	0.0
경기의정부시	196	0.0	전체	408,493	100.0

나. 개인적 특성

- 2023년 수원시 일자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국의 45.8%와 비교시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이는 수원시가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타지로 나가서 근무하고 여성들은 수원시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한편, 수원시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비율은 2022년 48.0%에서 2023년에는 2.8%p 감소함. 2022년 들어서 방역정책 완화로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 노동자 비율도 증가한 후 2023년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여성 노동자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노동자수(명)	비율(%)	노동자수(명)	비율(%)
성	남성	223,917	54.8	11,806,610	54.2
	여성	184,576	45.2	9,986,935	45.8
연령	29세 이하	62,411	15.3	3,631,484	16.7
	30대	90,984	22.3	4,551,642	20.9
	40대	102,636	25.1	4,967,867	22.8
	50대	97,634	23.9	4,853,889	22.3
	60세 이상	54,828	13.4	3,788,664	17.4
학력	중졸이하	29,122	7.1	2,253,190	10.3
	고졸	135,384	33.1	7,565,470	34.7
	전문대졸 이상	243,988	59.7	11,974,885	54.9
근속기간	6개월 이하	87,183	21.3	5,397,145	24.8
	6개월~1년 이하	30,001	7.3	1,645,649	7.6
	1~5년 이하	124,636	30.5	6,519,058	29.9
	5~10년 이하	59,483	14.6	3,262,125	15.0
	10년 초과	107,191	26.2	4,969,568	22.8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노동자수(명)	비율(%)	노동자수(명)	비율(%)
종사 상 지위	상용직	321,487	78.7	16,104,898	73.9
	임시직	65,855	16.1	4,614,518	21.2
	일용직	21,152	5.2	1,074,130	4.9
합계		408,493	100.0	21,793,545	100.0

- 연령대별로는 2022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 중에는 40대가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3.9%를 차지. 30대 임금노동자도 22.3%로 나타남.
 - 전국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했을 때 30대~50대의 중장년 노동자층의 비율이 전국 대비 약간 높은 편임.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 비율은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92.8%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학력수준은 약간 높음.
- 2023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근속을 확인한 결과 1~5년 이하가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0년 초과가 26.2%로 두 번째로 높았음. 전국 평균 근무기간과 비교했을 때 10년 초과 근속자의 비율이 확연히 높은 편.
- 전반적으로는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표 2-4] 참조), 성별로 남성의 비중이 낮고, 근무기간이 조금 짧으며, 40대 노동자 비율이 약간 더 높다는 점이 특징.

다. 고용형태별 분포

- 수원시 소재 사업체들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은 2022

년 63.1%에서 1.2%p 감소함. 반대로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함.

[표 4-3]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율

구분	2022년		2023년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정규직	273,959	63.1	253,022	61.9
비정규직	160,013	36.9	155,471	38.1
합계	433,972	100.0	408,493	100.0

라. 산업별 및 직종별 분포

- 2023년 수원시 소재 사업체들의 산업별 임금노동자수를 보면 수원시의 일자리 중에서 제조업은 2022년 대비 1.1%p 증가한 13.8%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 16.5%, 2019년 15.0%와 비교 시 최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진 편임. 즉, 수원시 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수원시 노동자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도시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 2019년 수원시 제조업 일자리는 61,974개로 최근 4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5,500여 개 감소한 셈.
-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 비중은 제조업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순서임.
 -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표 2-6] 참조), 건설업, 도소매업, 국방, 사회보장 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농림어업	98	0.0	86,493	0.4
광업	-	-	6,898	0.0
제조업	56,406	13.8	3,999,063	18.3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128	0.3	81,196	0.4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454	0.1	140,800	0.6
건설업	33,888	8.3	1,678,489	7.7
도소매업	36,855	9.0	2,125,895	9.8
운수및창고업	13,680	3.3	948,164	4.4
숙박및음식점업	25,464	6.2	1,433,602	6.6
정보통신업	11,038	2.7	906,414	4.2
금융보험업	12,103	3.0	753,909	3.5
부동산업	7,834	1.9	384,282	1.8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44,596	10.9	1,176,638	5.4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	27,740	6.8	1,316,217	6.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25,486	6.2	1,265,268	5.8
교육서비스업	42,024	10.3	1,616,139	7.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7,145	11.5	2,771,417	12.7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7,923	1.9	356,917	1.6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14,339	3.5	651,045	3.0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292	0.1	77,995	0.4
국제 및 외국기관	-	-	16,702	0.1
합계	408,493	100.0	21,793,545	100.0

-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33.0%로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을 보임. 전문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경향.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가 21.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능원과 장치,기계조작,조

립 종사자의 비중은 10%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다만 단순노무자의 비중은 2022년 15.7%로 세 번째로 많음.

- 전체적으로 수원시 거주 노동자와 직업분포는 비슷하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적어서 생산직종의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이 특징.

[표 4-5]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관리자	4,050	1.0	445,094	2.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34,856	33.0	5,178,181	23.8
사무종사자	87,352	21.4	4,676,234	21.5
서비스종사자	45,310	11.1	2,404,673	11.0
판매종사자	32,393	7.9	1,526,899	7.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64,019	0.3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30,178	7.4	1,722,909	7.9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20,717	5.1	2,132,633	9.8
단순노무 종사자	53,637	13.1	3,642,902	16.7
합계	408,493	100.0	21,793,545	100.0

2)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수원시 소재 사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22년 319.8만 원에서 2023년 348.6만 원으로 약 28만 원 가량 상승. 전국 수준의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으며, 수원시 거주 노동자들의 2023년 평균임금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임.
- 그런데 수원시 사업체 정규직 평균임금은 424.7만 원으로 수원시 거주 정규직 임금 409.5만 원보다 약간 높은 편
 -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수원시 거주 노동자들이 264.9만 원인 반면에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은 224.7만 원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수원시 내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

[표 4-6] 수원시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구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		수원시 거주 노동자	
	월임금(만원)	노동시간	월임금(만원)	노동시간
정규직	424.7	42.9	410.7	42.5
비정규직	224.7	32.4	228.7	33.7
평균	348.6	38.9	348.0	39.4

- 주당 노동시간을 보면 수원시 거주·사업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2시간대를 보임.
 - 수원시 거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수원시 사업체 보다 1.3시간 더 길어 전체적으로 수원시 거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0.5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사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원시 거주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으며, 노동시간은 조금 길었음.
 - 수원시 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수원시 거주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간 낮지만 노동시간도 약간 짧은 편임.
 - 이러한 점에서 수원시 소재 사업체 일자리들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수원시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즉, 수원시내에는 수원시민들의 임금수준을 만족시켜줄 일자리가 다소 부족하고, 이러한 이유로 특히 비정규직들의 경우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음.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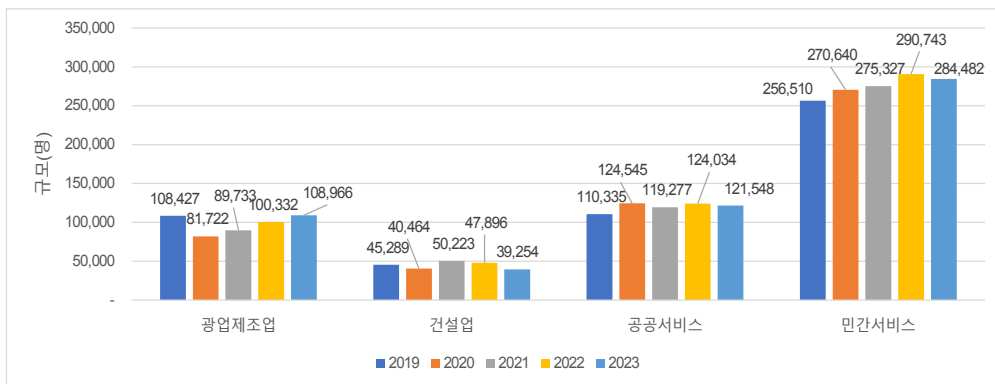
- 주요 업종 및 서비스부문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준산업분류(대분류)의 현황을 검토
- 이를 위해서 5개 업종 재분류 작업은 21개 대분류 업종을 <1. 농림어업 2. 광업제조업, 3. 건설업, 4. 공공서비스 5. 기타민간서비스> 5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1~3차 산업을 기본으로, 서비스부문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구분하였고 건설업의 경우 별도로 분류
 - 1~3번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은 대분류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산업대분류 중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에는 <4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6 교육서비스업,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
 - 기타민간서비스 부문에는 <7 도소매업 8 운수및창고업 9 숙박및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19 협회,단체,수리및기타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21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다만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2020년, 2022년, 2023년에는 조사 참여자가 없었으며, 2019년에는 2명, 2021년에는 1명만이 조사에 참여. 가중치를 부여하면 400여명 중반대 규모로 나타나지만 표본 수가 적어 농림어업 부문은 제외하고 4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함.

1) 일반적 현황

가. 산업5분류별 분포

- 2023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를 산업5분류로 분포를 확인한 결과, 우선 농림어업과 광업, 그리고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임금노동자는 수원시에는 없었음.
- 수원시에서 고용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이 포함된 광업·제조업 규모는 2019년 108,427명을 정점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2만 6천여명 감소한 후 2021년에는 89,733명, 2022년에는 100,332명, 2023년에는 108,96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함.

[그림 5-1] 수원시 산업 5대분류별 규모 추이



- 공공서비스 노동자수는 2019년 이후 11만명~12만명 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민간서비스 노동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들어서 약 6천 2백여 명 감소함.
 -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경기에 따라서 임금노동자수가 증감을 하고 있음. 2020년 다시 4만명 수준으로 감소 후 2021년에는 1만여 명 증가하였다가 2022년 들어서 다시금 3천여 명 감소 후 2023년에는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해 다시 8,600여 명 감소함.

-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시 공공서비스는 1.1만여 명, 민간서비스는 2.7만여 명이 증가하여, 지난 5년 동안 수원시 임금노동자 수 증가는 민간서비스 부문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 전체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민간서비스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에서 2020년 52.3%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2021년, 2022년은 제조업 노동자 규모 증가로 비율치가 약간 하락한 후, 2023년에는 51.3%를 기록.

나. 고용형태별 분포

- 다음으로 산업5분류로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비율은 제조업>민간서비스>공공서비스>건설업의 순서로 나타났음. 2022년에도 동일한 순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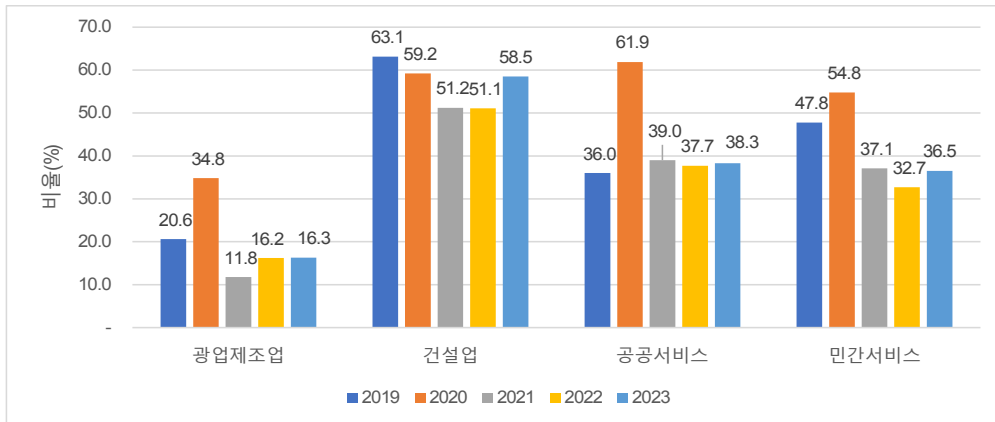
[표 5-1] 수원시 산업5분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분포

구분	2022년		2023년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제조업	84,075	16,257	91,250	17,716
	83.8%	16.2%	83.7%	16.3%
건설업	23,421	24,475	16,290	22,964
	48.9%	51.1%	41.5%	58.5%
공공서비스	77,228	46,806	74,950	46,598
	62.3%	37.7%	61.7%	38.3%
민간서비스	194,157	96,586	180,685	103,797
	66.8%	33.2%	63.5%	36.5%
전체	378,881	184,124	363,175	191,075
	67.3%	32.7%	65.5%	34.5%

- 2019년부터 산업5분류 기준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19 여

과로 2020년 광업·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2] 수원시 산업5분류 기준 비정규직 비율 추이



- 공공, 민간 서비스업 부문과 달리 광업·제조업은 2021년 11.8%로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한 후 2022년 들어서 16.2%로 4.4%p 상승한 후 2023년에도 0.1%p 상승하였음.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22년 들어서 상승한 결과.
- 수원시 산업별 고용중 제조업 고용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 제조업 일자리의 고용, 노동조건이 서비스업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 성별 분포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성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은 남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71.3%로 높게 나타남. 민간서비스 부문 남성노동자 비율은 59.9%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 수원시 산업5분류 성별 임금노동자 분포

구분	2022년		2023년	
	남성(명)	여성(명)	남성(명)	여성(명)
제조업	78,095	22,238	78,064	30,902
	77.8%	22.2%	71.6%	28.4%
건설업	43,282	4,614	34,953	4,301
	90.4%	9.6%	89.0%	11.0%
공공서비스	32,690	91,344	34,899	86,649
	26.4%	73.6%	28.7%	71.3%
민간서비스	171,623	119,120	170,352	114,130
	59.0%	41.0%	59.9%	40.1%
전체	325,690	237,316	318,268	235,982
	57.8%	42.2%	57.4%	42.6%

- 건설업은 예상대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 및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여성노동 문제 및 단시간 노동, 일-가정 병행 등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라. 연령대별 분포

- 수원시 산업5분류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업종별로 확인한 결과, 2023년 제조업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33.4%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로 29.4%를 차지.

[표 5-3] 수원시 산업5분류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비율

구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광업·제조업	2022	20.4%	27.3%	24.1%	21.8%	6.4%
	2023	11.2%	33.4%	29.4%	17.2%	8.8%
건설업	2022	11.5%	18.2%	20.5%	32.1%	17.8%
	2023	6.4%	14.0%	25.0%	33.5%	21.0%
공공서비스	2022	18.3%	21.4%	27.2%	20.8%	12.3%
	2023	19.1%	18.1%	26.8%	23.3%	12.7%
민간서비스	2022	21.1%	24.1%	22.6%	19.8%	12.3%
	2023	19.3%	23.0%	22.4%	22.0%	13.4%

- 건설업은 50대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60대 이상의 비율도 21.0%로 높게 나타나 건설업은 고령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 반면 공공서비스 부문은 2022년 40대의 비중이 26.8%로 가장 높으며 30대 노동자 비율은 전년 대비 3.3%p 감소함.
- 민간서비스 부문은 30대가 23.0%로 가장 높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19%에서 20% 초반 비중으로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 60세 이상도 13.4%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젊은 노동자들이 다수이지만, 60대 이상의 고령노동자들도 민간서비스부문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고령 노동자들은 주로 청소 및 경비 등의 사업시설관리서비스부문 노동자들로 추정)

마. 학력별 분포

-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서비스부문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3/4을 넘고 있음.

[표 5-4] 수원시 산업5분류 학력별 임금노동자 비율

구분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
광업·제조업	2022	4.6%	37.0%	58.4%
	2023	4.9%	31.2%	63.8%
건설업	2022	11.5%	48.2%	40.3%
	2023	14.8%	56.6%	28.6%
공공서비스	2022	6.6%	16.8%	76.6%
	2023	4.8%	20.5%	74.7%
민간서비스	2022	7.3%	32.8%	59.8%
	2023	7.9%	33.4%	58.8%

- 건설업은 고졸 비율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이하는 14.8%로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년도와 비교 시 초대졸 이상 비율은 급감한 반면 고졸과 중졸이하 노동자 비율이 증가.
 - 건설경기 하강에 따라 초대졸 이상 건설노동자가 대거 다른 산업으로 취업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
- 민간서비스부문의 경우 학력별 현황에서 중졸이하가 7.9%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바. 근속별 분포

- 근속별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5분류를 확인한 결과, 2023년 기준 현재의 업체에서 10년 초과 근무한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광업·제조업이 33.0%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서비스부문이 26.9%로 두 번째.
 - 지난 해에도 제조업이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2023년 들어서 10년 초과 장기근속자 비율이 2.9%p 감소하였음. 공공서비스 부문 또한 전년 대비 10년 초과 장기근속자 비율이 3.5%p 감소함.

[표 5-5] 수원시 산업5분류 근무기간별 임금노동자 비율

구분		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	1~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초과
제조업	2022	16.5%	3.0%	32.3%	12.3%	35.9%
	2023	12.9%	6.0%	31.5%	16.5%	33.0%
건설업	2022	51.9%	7.0%	21.6%	8.5%	11.0%
	2023	45.3%	10.4%	18.5%	12.6%	13.2%
공공서비스	2022	18.3%	8.2%	29.5%	13.7%	30.4%
	2023	20.6%	6.6%	34.1%	11.8%	26.9%
민간서비스	2022	21.7%	6.0%	37.4%	15.5%	19.3%
	2023	23.5%	7.5%	33.8%	14.6%	20.6%

- 6개월 이하 단기근무자의 비율은 산업 특성상 건설업이 45.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공공, 민간서비스부문은 6개월 이하 근무자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함.
- 대체로 건설업과 기타민간서비스부문이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낮고, 신규 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입직과 전직의 일자리의 이동이 잦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사. 직종별 분포

- 산업5분류로 2023년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자는 전문가의 비율이 54.7%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민간 서비스도 28.8%로 전문가 비율이 다소 높은 편. 제조업의 전문가 비율은 22.8%로 생산기능직군보다 비중은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 반면 건설

업은 기능원이 60.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민간서비스부문은 다른 산업에는 거의 없는 판매종사자가 11.6%를 나타냄.

[표 5-6] 수원시 산업5분류 직업별 임금노동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제조업	건설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관리자	인원수	0	887	1,369	1,371
	비율	0.0%	2.3%	1.1%	0.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인원수	24,878	3,934	65,946	81,809
	비율	22.8%	10.0%	54.3%	28.8%
사무종사자	인원수	37,036	5,661	23,268	59,260
	비율	34.0%	14.4%	19.1%	20.8%
서비스종사자	인원수	0	0	18,639	36,053
	비율	0.0%	0.0%	15.3%	12.7%
판매종사자	인원수	923	0	0	32,909
	비율	0.8%	0.0%	0.0%	11.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인원수	-	-	-	-
	비율	-	-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인원수	10,811	23,866	537	15,160
	비율	9.9%	60.8%	.4%	5.3%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인원수	29,393	0	1,660	10,442
	비율	27.0%	0.0%	1.4%	3.7%
단순노무 종사자	인원수	5,925	4,906	10,128	47,479
	비율	5.4%	12.5%	8.3%	16.7%

* 비율 수치는 세로축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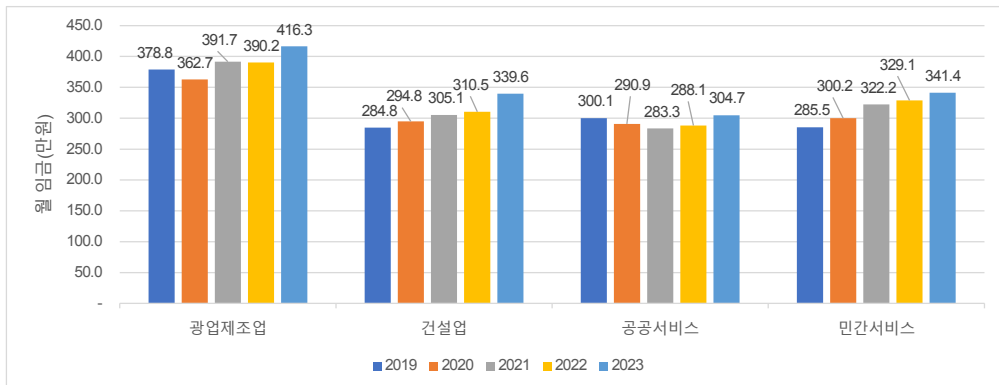
- 제조업은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비중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종사자 비율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직업 분포와 다소 차이. 이는 수원시의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경우 인근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사무관리직들이 수원에서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건설업과 기타민간서비스 부문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각각 12.5%,

1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월 평균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2023년 광업·제조업이 416.3만 원으로 다른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건설업의 경우 2019년 284.8만원에서 2023년 339.6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
 - 공공서비스의 2020년 평균임금은 290.9만원으로 2019년 대비 10만원이 하락한 후 2021년부터 약간씩 상승해 2023년 304.7만 원을 기록했지만 4개 부문 중 평균임금이 가장 낮음.
 - 기타민간서비스부문의 월평균임금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018년 285.5만 원에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2023년 341.4만 원까지 상승.

[그림 5-3] 산업5분류별 월 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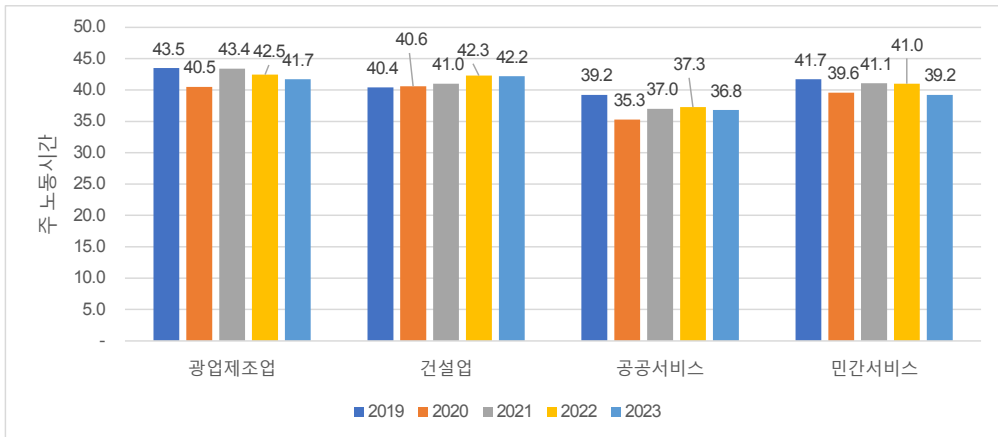


- 산업5분류별로 주당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시간 감소 추세를 배경으로 2019년에는 제조업이 43.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이후 약간 감소해 2023년에는 41.7시간을 기록.
 - 2020년에는 건설업이 40.6시간으로 가장 길었지만 제조업 40.5시간

과는 별 차이가 없음. 공공서비스부문은 2019년 39.2시간에서 2023년에는 3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감소.

- 제조업이 임금수준은 높지만 노동시간도 긴 편이며, 공공서비스 부문은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민간서비스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2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감소한 후 2021년, 2022년 41시간 대로 회복하였지만 2023년에는 다시 노동시간이 감소.

[그림 5-4] 수원시 산업5분류별 주 노동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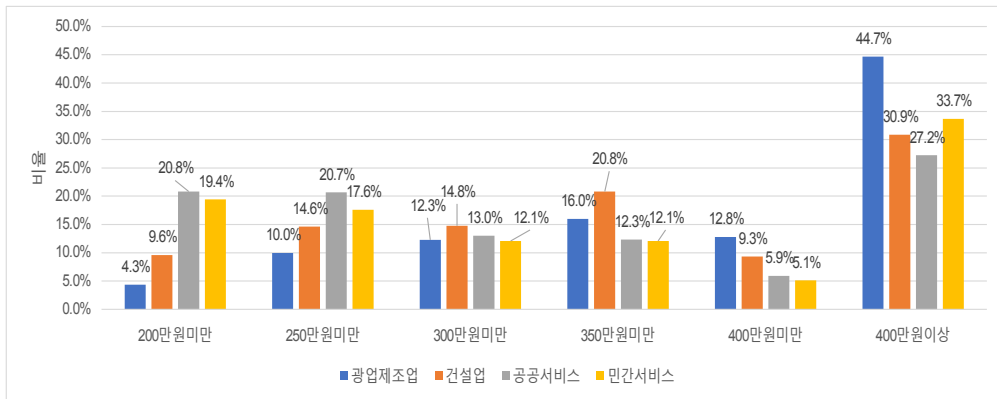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구간별로 노동자들의 분포를 확인하여, 고임금 군과 저임금 군의 분포를 확인함.
 -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하여 월 2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의 산업부문별 비중을 확인한 결과 공공서비스에서 20.8%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은 4.3%로 가장 낮은 편이었음.
- 반면 월 4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제조업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서비스업이 27.2%로 가장 낮았음.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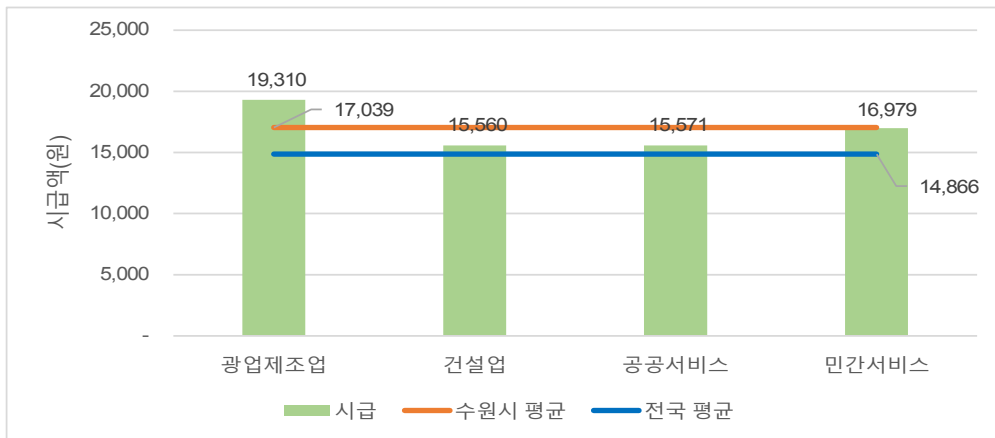
- 제조업과 민간서비스업은 400만 원 이상 구간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업은 30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이 분포.

[그림 5-5] 수원시 산업5분류별-임금구간별 비율



- 노동시간을 고려한 시급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은 19,310원으로 역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서비스가 16,979원으로 두 번째였음. 건설업과 공공서비스업은 15,000원 대 시급액을 보임.
 - 공공서비스는 월평균임금은 가장 낮았으나 시급은 3번째로 높은 수준. 공공서비스 부문의 낮은 월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도 한 요인임.

[그림 5-6] 수원시 산업 5분류별 시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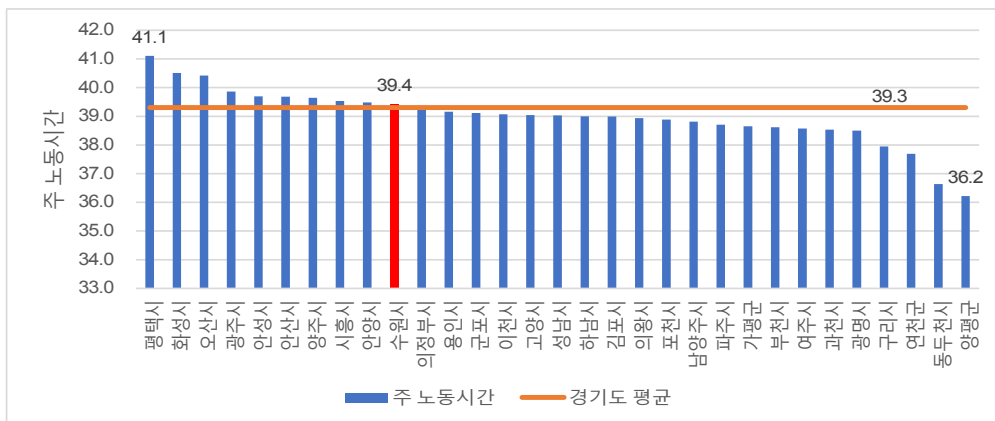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향후 과제**

● 2023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전년도인 2022년은 7번째였으나 2023년에는 순위가 2계단 하락함. 그럼에도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은 지속되고 있음(이는 기본적으로 한강 이북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와 군지역의 평균임금이 낮기 때문이기도 함).
- 2023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안성시, 안산시, 영주시, 시흥시, 안양시의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수원시 임금노동자들보다 길었으며, 수원시 임금노동자는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0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편으로서 경기도 평균과 거의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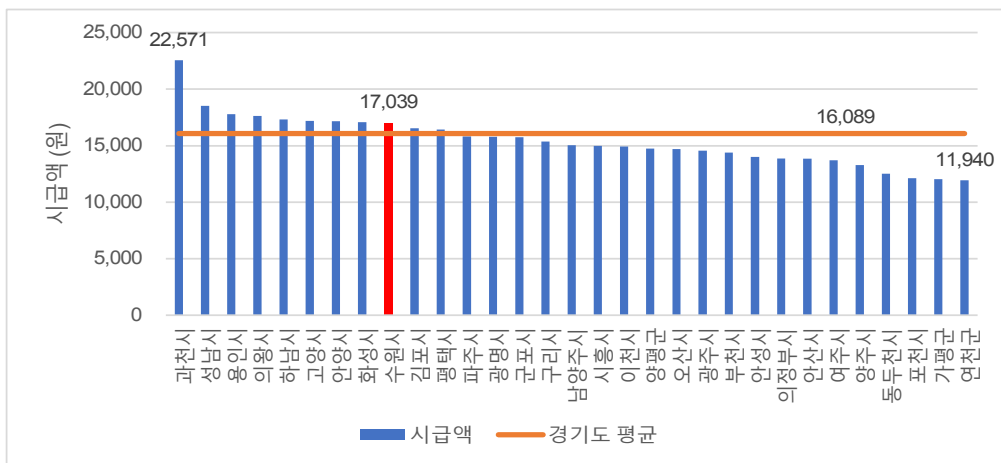
[그림 6-2] 경기도 지자체별 주 노동시간



- 2023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39.4시간, 월평균임금은 34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주당 노동시간 38.4시간, 월평균임금 304.1만 원과 비교했을 때 수원시 노동자들이 주당 1.0시간 정도 더 일하지만 전국의 임금노동자들보다 약 44만 원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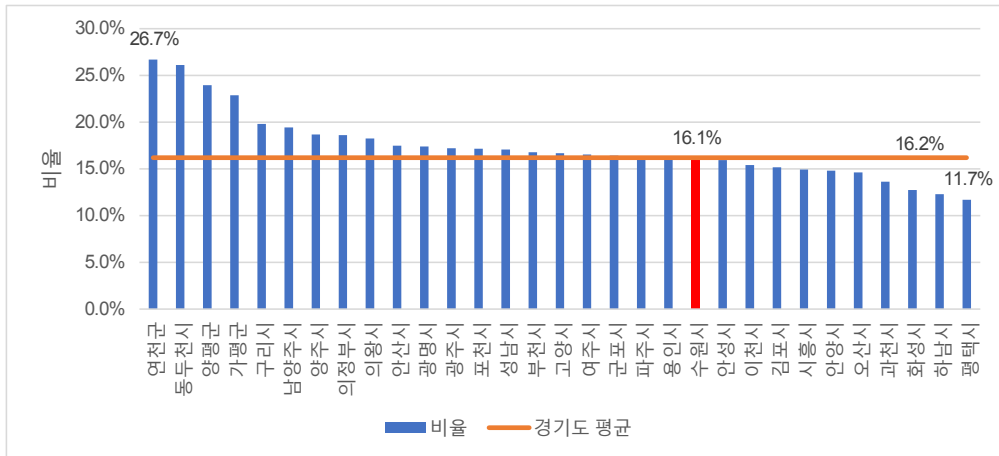
- 2023년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의 임금수준은 순위가 약간 낮아지고, 노동시간도 순위가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더디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노동시간을 고려한 평균시급을 비교한 결과 수원시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17,039원으로 9번째로 높게 나타남.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순서와 동일.

[그림 6-3] 경기도 지자체별 시급액



- 경기도 31개 시군별 월급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는 16.1%로 경기도 내에서 11번째로 낮았음. 평균임금은 9번째로 양호했으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1번째로 양호한 순위를 유지.
 - 전년도의 해당 비율은 16.7%로 올해는 0.6%p 감소하는데 그침. 경기도 전체로는 전년도 19.7%에서 올해 16.2%로 3.5%p 감소했다는 점에서 수원시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감소가 더딘 편임.

[그림 6-4] 경기도 지자체별 월 임금 200만 원 미만자 비율



- 임금, 고용으로 살펴본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음.
 - 수원시 소재 사업체 일자리도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수원시에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정체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반대로 민간 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시 노동정책의 핵심 대상이 점진적으로 광의의 서비스업 영역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
 - 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과 비교 시 임금, 노동시간 등 핵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 내 취약 계층인 기혼 여성노동자가 다수 취업하는 산업임.
 - 200만 원 미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 원인.
 - 서비스업-비정규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노동 의제와 정책 개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 구조적인 실업자 수 증가라기 보다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 내 내부자-외부자 간 격차가 구조화되지 않도록 하는 실업자 정책도 고려.